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새로 개건된 류원신발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리설주 동지와 함께 우리 나라 신발공업부문의 전형단위, 표준공장으로 훌륭히 전변된 류원신발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먼저 공장구내에 정중히 모신 모자이크벽화 《류원신발공장에서 생산한 신발을 보아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와 공장에 새겨져있는 조선로동당의 불멸의 령도자욱을 후세에 길이 전하기 위해 건립한 현지지도표식비를 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새로 꾸린 혁명사적교양실과 연혁소개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통합생산지령실, 재단직장, 재봉직장, 제화직장, 사출직장, 과학기술보급실, 도안실, 제품전시실 등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개건 및 생산전형, 제품의 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공장안의 모든 생산 및 운영설비들을 실시간으로 감시조종할수 있는 에네르기 절약형통합생산체계를 훌륭히 구축해놓음으로써 생산과 품질의 최량화를 실현할수 있게 하였는데 잘하였다고 치하하시였다.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의 기치를 높이 들고 제화흐름선을 비롯하여 87종에 1, 600여대의 현대적인 설비들을 자체로 제작설치함으로써 국산화비중을 87%이상으로 보장하였는데 대단하다고 말씀하시였다.

로력을 극력 절약할수 있게 원료배합, 재단, 사출, 제화, 재봉공정들의 자동화, 흐름선화를 실현하였으며 로동자들에게 훌륭한 로동조건과 생산환경을 보장해줄수 있도록 생산현장에 성능이 높은 송배풍기를 설치하여 유해가스를 완전히 없애였다고 못내 기뻐하시였다.



초림계탄산가스에 의한 염화비닐발포기술을 도입하여 가벼우면서도 질이 좋은 신발창을 생산할수 있게 하였으며 9종에 130여종의 운동신발창형타와 깔창형잡이형타를 제작하고 현대적인 레이자재단기, 압괴재단기, 채본인쇄기 등을 새로 설치하여 운동신발의 다종화, 다양화, 다색화를 실현할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시였다.

제품검사를 철저히 할수 있도록 반복구부림시험기, 충격시험기, 축구화특성시험기 등 현대적인 검측설비들을 우리의 힘과 기술로 제작하여 설치해놓았는데 우리 사람들의 지혜는 무궁무진하다고 말씀하시였다.

신발생산의 선행공정이 도안이라는것을 명심하고 공장을 개건하면서 도안실을 잘 꾸려놓았는데 전문가들은 물론 종업원들속에서 도안작업현상음모도 활발히 벌려야 한다고 하시였으며 과학기술보급실 운영을 짜고들어 종업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끊임없이 높여주고 시야를 넓혀줌으로써 생산에서 걸린 문제는 과학기술의

힘에 의거하여 풀어야 한다고 하시였다. 공장에서 운영하는 상점에 레이저3차원발측정기를 설치해놓고 구매자들의 발을 재어보고 그에 맞게 신발을 주문생산까지 할수 있게 하였는데 인민들이 좋아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공장옥상에 설치한 400kW능력의 태양발전설비들의 가동실태를 료해하시고 신발생산과 랭난방, 식당운영, 조명 등 생산과 경영활동에 필요한 전기를 생산보장하고있는데 대하여 치하하시였으며 종업원들이 충분한 문화정서생활을 할수 있도록 목욕탕, 수영장을 비롯한 문화후생시설들도 손색없이 꾸려놓았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류원신발공장에서 생산하고있는 운동신발들의 가지수가 대단히 많고 맵시있으며 질이 좋다고, 세계적으로 이름난 운동신발들과 당당히 견줄수 있다고 하시면서 우리가 만든 운동신발, 체육신발들을 신고 기뻐할 인민들과 아이들, 체육인들을 생각하니 정말

흐뭇하다고 환하게 웃으시였다.

류원신발공장의 제품들을 김정숙평양방직공장과 평성합성가죽공장에서 생산한 그물천과 합성가죽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우리의 것을 가지고 만든 신발들을 보니 정말 힘이 나고 기분이 좋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류원신발공장이 우리 나라 신발공업부문의 전형단위, 표준공장으로 전변된데 맞게 신발들을 인민들의 호평을 받고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제품으로 생산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공장앞에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류원신발공장의 전경을 보고 또 보시며 내놓고 자랑할만 한 공장, 안팎으로 흠잡을데가 없는 만점짜리 공장,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마련된 또 하나의 재부라고 하시면서 공장을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로 일떠세운 일군들, 과학자, 기술자, 건설자들의 로력적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류원신발공장을 정말 만족하게 돌아보았다고 하시면서 공장에서 높이 울리고있는 생산중산의 동음소리는 필승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부강번영하는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워가는 천만군민의 힘찬 진군가로 들린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류원신발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자기들앞에 맡겨진 영예로운 임무를 항상 명심하고 인민들에게 질 좋고 맵시있는 운동신발들을 안겨주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본사기자



# 백두산장군의 기상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국력은 정도자의 위대성에 달려있다.

우리 공화국은 비범한 군사적예지와 선견지명, 무비의 담력과 배짱을 지니신 백두산형의 장군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을 모시여 정세가 아무리 엄혹하고 외세의 간섭과 위협책동이 악랄하여도 사소한 주저나 동요도 없이 언제나 맞받아나아가며 자주적존엄과 필승불패의 기상을 떨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은 천만대적이 덤벼들어든 눈섭 하나 까딱하지 않으시는 무비의 담력과 배짱을 지니신 백두산장군 이시다.

그이께서 조선인민군 근위 서술류경수제105땅크사단에 대한 현지시찰을 비롯하여 대소환의 강추위도, 삼복의 무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쉬임없이 이어가신 군력강화의 길은 순탄한 길이 아니었다. 그 길에는 적의 총구가 지척에서 마주보이는 최전방인 판문점에 대한 시찰도 있었고 자그마한 목선을 타고 날바다의 파도를 헤쳐가신 서부전선의 최대열점 지역 장재도와 무도에 대한 현지시찰도 있었다.

군력강화와 조국수호를 위한 그 길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말씀하시였다.

적들이 감히 서툰 불질을 해대며 우리의 령토에 단 한점의 불꽃이라도 떨군다면 그것을 서남전선의 국부전쟁으로 그치지 말고 조국통일을 위한 성전으로 이어가라!

도발에는 즉시적인 대응타격으로, 침략전쟁에는 정의의 조국통일대전으로!

백두산장군의 불호령에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은 극도의 공포와 불안에 떨었고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겨레는 커다란

힘과 용기를 받아안군 하였다.

서방의 한 언론은 김정은최고령도자의 서남전선 최남단 최대열점지역의 섬방어대에 대한 시찰로 미국은 공포에 떨고있다고 하였고 남조선의 한 출판물도 《김정은위원장이 타고 서해 최전선으로 나아간 27P짜리 작은 목선은 원자로 2기와 초대형중기타빈 4대로 움직이는 핵추진항공모함 <조지 워싱턴> 호의 침입을 꺾을수 있다는 담력과 배짱의 상징으로 보

인다.》고 하였다.

그 누가 감히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건드리거나 침해한다면 추호도 용서치 않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드림없는 자주적신념과 의지, 무비의 담력과 배짱, 승리의 역센 기상은 조국과 민족에 대한 열렬한 사랑에 뿌리를 두고있다.

사랑이 클수록 그것을 애타는 자들에 대한 중요심도 그만큼 높아지게 되는 법이다.

나라와 민족에 대한 가장 열

렬한 사랑을 지니신 절세의 애국자가 아니고서는 언제, 어느 시각에 총포성이 울릴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최전연지대로 선뜻 발걸음을 옮길수 없으며 인민의 행복한 생활을 빼앗으려고 달려드는 침략세력에게 것처럼 무서운 징벌의 선언을 하실수 없는것이다.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번영과 미래를 위해 조국수호를 위한 군력강화의 길을 쉬임없이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몇해전 2월 조선

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조선인민군 제630대련합부대의 비행훈련과 항공특전병강하훈련을 지도하시면서 인민군군인들은 언제나 최대의 격동상태에서 싸움준비에 박차를 가하며 적들이 움쩍하기만 하면 다지고다져온 무진막강한 전투력을 총폭발하여 놈들이 정신을 차릴새없이 호되게 답새기고 침략의 아성을 흔적도 없이 날려버려야 한다고 하시였다.

마디마디 령장의 담력과 기개, 애국의 신념이 맥박치는

그이의 명령은 미국의 《보복》에는 보복으로, 전면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 대답할것이라는 폭탄같은 선언으로 미국을 전복케 하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담력, 원수들이 칼을 휘두르면 우리는 장검을 내들고 원수들이 총을 내대면 우리는 대포를 내댄다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배짱을 그대로 닮은 백두산장군의 불호령이었다. 천만군민에게는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고 적대세력에게는 쓰디쓴 파멸을 선고하는 징벌의 철추와도 같았다.

지난 9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국가와 인민의 존엄과 명예 그리고 나 자신의 모든것을 걸고 우리 공화국의 절멸을 췌친 미국통수권자의 망발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받아낼것이라고, 미국의 늑대리미치광이를 반드시 반드시 불로다스릴것이라고 선언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인민을 절멸시키겠다고 췌친 늑대리미치광이를 절대로 용서치 않으며 불을 즐기는 불망나니, 승냥이 미제를 가장 단호하게, 가장 무섭게 징벌하고야 말려는 백두령장의 결심과 의지가 성명의 문구마다에서 우뢰처럼 진동하고있다.

지금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발표하신 성명을 높이 받들고 산악같이 떨쳐일어나 적대세력들에게 무자비한 철추를 안길 멸적의 의지와 열의에 충만되어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탁월한 령도밑에 공화국은 무분별한 망동을 부리는 미국을 제압하고 세기를 이어오는 정의의 반제반미대결전에서 반드시 최후승리를 이룩하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주일봉



악의 제국을 불로 다스리려는 천만군민의 멸적의 췌침 하늘땅을 뒤흔든다.

**간곡한 당부**

지난해 2월 어느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새로 개발한 반땅크유도무기시험사격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그이의 사격명령이 하달되자 시뻘건 불줄기들이 목표들을 향하여 연방 날아가고 목표들이 산산이 부서져버렸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이 반땅크로케트에는 우리 당의 유격전에 관한 군사전략사상이 집대성되어있다고 하시면서 정밀성과 놀랄만 한 위력을 가지고있는것으로 하여 이 무기는 나무랄데 없는 우리 나라 현실에 알맞는 주체무기이라고, 이 하나의 주체무기만 놓고보아도 우리 당의 무장장비정밀화, 경량화방침이 얼마나 정당한가 하는것을 알수있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두자루의 권총으로 시작된 우리 혁명을 총대기로 이어이 완성해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과업이 우리의 국방과학자들과 군수동맹계급의 어깨우에 실려있다고, 주체혁명위업의 영광찬란한 앞길을 강력한 국방력으로 튼튼히 담보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진짜 핵억제력**

지난해 3월 어느날이었다.

국방과학부문의 핵과학자, 기술자들을 만나시여 핵무기병기화사업에서 이룩한 자랑찬 성과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안광에는 시종 기쁨의 미소가 어려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우리 식의 혼합장약구조로서 열핵반응이 순간적으로 급속히 전개될수 있는 합리적인 구조로 설계제작된 핵탄두가 정말 대단하다고, 핵탄을 경량화하여 탄도로케트에 맞게 표준화, 규격화를 실현했는데 이것이 진짜 핵억제력이라고, 조선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못해내는 일이 없다고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핵선제타격권은 결코 미국의 독점물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미제가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핵으로 덮치려할 때에는 주저없이 핵으로 먼저 냅다 칠것이라고 하시였다.

본사기자

**끝까지 가야 할 애국의 길**

시간이 흐르고 날이 갈수록 공화국인민들이 더욱 심장깊이 절감하는 진리가 있다. 그것은 피어린 투쟁속에서 이룩한 승리를 통하여 체험한것이고 준엄하고 침에한 정세의 소용돌이속에서 깨달은것이며 수난당한 다른 민족들의 교훈에서 새긴 철리이다. 그 진리가 바로 병진의 길이 천만번 옳은 길, 변함없이 가야 할 길이라는것이다.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로선을 제시하시면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엄숙히 천명하시였다.

병진로선은 급변하는 정세에 대처하기 위한 일시적인 대응책이 아니라 우리 혁명의 최고리익으로부터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전략로선이다. 제국주의자들의 핵공갈과 침략위협이 계속되는 한 우리는 세대가 바뀌고 정세가 어떻게 변하여도 절대로 핵을 약화시킬수 없으며 주체적인 원자력공업을 끊임없이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그이께서 제시하신 로선은 과학이었다. 현 정세에 대한 분석과 앞으로의 정세추이에 대한 판단도 과학적이었고 그에 따르는 결심체력과 령도도 역시 과학적이였다. 그의 현명한 령도밑에 병진의 길로 나아가는 과정에 공화국의 핵억제력은 비약적으로 강화되고 이제는 수소탄과 대륙간탄도로케트도 가진 세계적인 군사강국의 위력을 떨칠수 있게 되었다.

오늘날 세계의 최대관심사로 되고있는 조선과 미국간의 치렬하고 침에한 핵대결전을 랭철하게 살펴보자. 올해 《키 리졸브》, 《독수리》, 《울지 프리덤 가디언》 등 미국과 추종세력이 강행한 침략전쟁연습으로 조선반도에서는 언제한번 전쟁발발의 위험성이 가셔진적이 없다.

지어 미국의 현 집권자는 유엔무대에서 공화국의 《완전파괴》라는 전대미문의 미치광이나발을 불어대었으니 조선에 대한 미국의 침략위협이 과연 어느 지경에 이르렀는가는 알고도 남음이 있다.

공화국이 핵억제력을 비롯한 무적의 자위적군력을 가지고있기때문에 신성한 주권국가인 수리아에 예고도 없이 수십기의 미싸일을 발사하고 아프가니스탄에 초대형폭탄을 떨군 횡포무도한 강패의 나라 미국이 조선에 대해서는 감히 선불질을 하지 못하고있는것이다.

칼을 들고 덤벼드는 강도는 칼을 들고 맞서야 하는것처럼 오늘의 랭혹한 국제현실은 자기를 지키자면 무엇보다도 힘이 강해야 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정세가 침에해질수록, 미국의 핵위협이 날을 따라 증대될수록 조선이 나아가는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의 길이 천만번 옳은 길, 변함없이 가야 할 길이라는것을 더욱 명명백백하게 증명해주고있다.

위대한 령도자만이 가장 과학적이고 현명한 로선을 제시할수 있다. 준엄한 국제정치정세의 난파도를 승리적으로 헤쳐오는 과정을 통하여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의 현명성에 대하여 다시금 똑똑히 절감하게 되었다.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적대세력들이 조선반도의 정세를 핵전쟁정경으로 몰아갈수록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자기 령도자에 대한 믿음을 절대불변의것으로 더욱 굳게 간직하게 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만 계시면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천만군민이 한결같이 러치는 이 췌침은 미국을 호되게 다블리시는 천하제일배짱가, 천하제일명장에 대한 다함없는 매혹과 숭배심, 이 행성에서 누구도 당할수 없는

지략을 지니신 전설적위인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부터 울려나오는 신념의 메아리이다.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은 조선이 보유한 수소탄의 위력에 대한 기술적 분석이나 대륙간탄도로케트의 사거리를 계산하기 전에 조선의 군대와 인민이 지니고있는 자기 령도자에 대한 끝없는 신뢰와 흠모, 병진로선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에 대하여 먼저 심고해야 할 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시하신 병진로선이 과학적이고 진리이기에 조선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써도 조선이 가는 병진의 길을 절대로 막을수 없다. 미국이 《군사적선력》을 떠들며 또다시 수많은 전략자산들을 조선반도주변에 끌어다 놓고 핵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고있지만 그것은 무진막강한 조선의 위력에 질겁한 자들의 단말마적인 발악에 불과하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밑에 조선은 추호의 흔들림없이 전쟁억제력을 백방으로 다지며 최후승리의 령마루에로 치달아오고있다.

본사기자 고성호

자위적국방력강화의 나날에

# 승리의 노래 울리는 조선

만사람의 심장마다에 감동과 비약의 불을 달아주는 조선의 공훈국가합창단, 모란봉악단, 왕재산예술단의 진취적이고 격동적인 음악무용종합공연이 사회주의의 힘찬 진군가가 되어 높이 울려 퍼지고 있다.

공연을 본 관람자들은 무대에 올라 예술인들의 손을 잡고 꽃다발을 안겨주며 정말 수고했다고, 다시 와서 멋진 공연을 보여달라고 절절히 부탁하였다.

동해의 항구문화도시인 원산시에 첫 공연의 막을 올린 이래 함흥시와 신의주에서 화려한 공연무대를 펼친 공훈국가합창단, 모란봉악단, 왕재산예술단의 공연은 강계시에서 열린 대성황을 이루며 특색있게 진행되고 있다.

공연장소와 그 주변은 뜻깊은 공연을 보려고 찾아온 사람들로 매일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화려한 무대에서는 출연자들이 격동적인 내용의 노래와 춤을 펼치고 관객악을 울리었으며 객석에서는 감동에 젖은 관중들이 박수를 치고 여기저기서 춤을 추었다.

인터넷을 통해 공연소식들을 접하면서 우리 해외동포들도 깊은 감동을 받았다.

지금 세계의 이목은 조선반도에 쏠려 있다. 각국의 언론들과 전문가, 정치인들이 저마다 핵문제를 둘러싼 조미대결을 지켜보면서 트럼프의 광신적인 전쟁폭언들에 우려감을

표시하고 있다. 남조선에서도 당장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가 하여 사람들이 공포와 불안속에 살며 비상용품들을 미리 사두는 현상들도 나타나고 있다.

그런 속에서도 조국에서는 승리의 신심과 랑만을 불러일으켜주는 특색있는 공연소식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니 우리 동포들의 마음도 더욱 든든해지고 조국은 이긴 싸움을 하고 있다며 저마다 격동된 소감들을 피력하고 있다.

이것은 결코 과장된 소리가 아니다. 공연진행장면들을 보노라면 저절로 갈마드는 생각이 확신이다.

조국에서는 시대의 숨결이 맥박치고 커다란 견인력과 감화력, 호소성을 가진 음악을 무기로 인민을 결속하고 발동시켜 사회주의강국건설에 추동하고 있다.

위대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께서는 생전에 음악은 자신의 첫사랑이고 영원한 길동무이며 혁명과 건설의 위력한 무기로 하고 하시면서 음악을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전진시켜나가기 위한 위력한 수단으로 되게 하시었다.

국방위원장님께서도 조국이 것처럼 어려웠던 1990년대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도 방사포의 일제 사격소리

와도 같은 공훈국가합창단의 노래포성으로 군대와 인민에게 승리의 신심과 용기를 주시었고 《봉괴》망상에 사로잡혀 제재와 봉쇄소동에 매달리던 제국주의련합세력을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하시었다.

하기에 국방위원장님께서선군정치와 함께 음악정치로 이 땅우에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하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기려고 한다고 자신의 결심을 피력하신 것이다.

오늘 조국의 각지를 뒀던 뒤 흔들고 있는 음악포성은 경애하는 김정일 최고령도자님의 음악정치의 위력을 널리 과시하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님 그대 로 이 신 경 애 하 는 최고령도자님께서도 음악을 매우 사랑하시고 중시하신다.

2012년 1월 어느 한 공연을 관람하신 그이께서는 음악의 사명은 사람들을 정서적으로 감동시키고 그들의 사상과 정신을 발동하여 혁명투쟁에 고무추동하는데 있다고 하시었다고 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님께서 문학예술부문에서 혁명을 일으키기 위한 위대한 구상을 안으시고 새 세기의 요구에 맞는 모란봉악단을 조직하여주시

였다. 최고령도자님께서서는 친히 악단의 명칭을 《모란봉악단》이라고 명명해주시고 악단이 자기의 사명에 충실하는 길도, 세계적인 악단이 되는 비결도 바로 인민이 좋아하고 즐겨부르는 음악을 창조하는데 있다고 금옥같은 가르치심을 주시었다고 한다.

최고령도자님께서서는 악단이 이전 예술단체들의 음악창작 방식과 음악연주형식에서 벗어나 새롭게 과격적인 자기식의 음악창작방식과 음악연주형식을 창조하도록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지도해주시었다고 한다.

몸소 예술인들이 훈련하는 현장에 나오시어 가수들의 눈과 귀를 띄어주시면서 세계적으로 발전되었다고 하는 음악예술의 형식과 창조수법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악단의 곡목선정에서부터 편곡과 배우들의 연기형상, 분장과 인사법, 무대조명과 장치, 음향조절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세심한 지도를 주시었다고 한다.

또 현지지도의 길에서 악단의 노래를 록음으로 들어주시며 노래형상안을 가르쳐주시고 작품의 리듬 하나, 화성

기호 하나하나에도 품을 들여 완성해주시었을뿐 아니라 친히 피아노를 치시며 편곡의 새로운 방법론을 실천적모범으로 가르쳐주시고 지어 가수들의 감정축적과 폭발, 지속음유지를 위해 몸소 범창까지 하시며 열정적으로 지도하시었다고 한다.

이렇게 절세위인의 손길속에서 자라난 모란봉악단은 과격적인 선률형상과 독특한 무대 연출로 조국인민들에게 최후승리에 대한 신심과 락관을 주고 있으며 우리 해외동포들에게도 민족적자긍심을 깊이 심어 주고 있다.

국보적인 예술단체인 모란봉악단의 인기는 날이 갈수록 높아져 이전에는 좀처럼 조선을 칭찬하는 일이 없던 이남의 전문가들까지도 TV방송대담에 출연하여 《모란봉악단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최고의 연주단체》라고 고백하였다.

공훈국가합창단, 모란봉악단, 왕재산예술단의 음악무용종합공연을 보면서 조국의 관중들은 혁명적기백이 넘치는 공연을 보니 날강도 미체가 제아무리 날뛰어도 우리 원수님께서 계시어 우리 조국은 끄떡없다는 배심으로 마음이 든든해지고 새힘이 솟음을

친다, 어리석게도 감히 우리를 어찌보겠다고 망발을 뱉쳐댄 미국의 불망나니들이 오늘의 이 황홀한 공연을 보면 아마 눈이 뒤집혀질것이다, 정세가 엄혹하고 천만시련이 앞을 가로막을수록 사회주의령마루를 향하여 총돌격해나가는 우리의 신념을 더 굳게 버려준 노래들은 이 가슴속에 시대의 진군가로 울릴것이라고 자기들의 격동된 심정을 토로하였다고 한다.

지금 미국과 그 추종국가들은 자주의 길로 역세게 나아가는 조선을 굴복시키고 붕괴시키려고 갖은 비열한짓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그 어떤 힘으로도 승리의 노래, 신념의 노래를 더 높이 부르며 최후승리를 향하여 노도쳐 나아가는 조국인민들의 힘찬 전진을 멈출 수도, 되돌릴 수도 없다.

트럼프의 전쟁폭언도, 미국의 제재와 핵전쟁도 발광기도 승리의 노래소리가 날로 더욱 높이 울리는 조선에는 추호도 통할수 없다. 최후승리는 노래소리 높이, 신심드높이 발걸음도 씩씩하게 나아가는 조선의 군대와 인민에게 있다.

동방의 맑은 아침의 나라에서 힘차게 울려 퍼지는 음악포성을 들으며 우리 해외동포들도 승리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조국과 민족을 위한 통일애국활동을 더 활발히 벌려나가고 있다.

정진명 (재로씨야동포)



# 가을철 승마 애호가 경기 진행

전국의 승마애호가들과 인민들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속에 가을철승마애호가경기가 15일 미림승마구락부에서 진행되었다.

인민들이 최고의 문명을 최상의 수준에서 향유하도록 해주시려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의 숭고한 사랑에 떠받들려 종합적이며 현대적인 대중승마보상기지로 꾸러진 세계굴지의 미림승마구락부로는 평양시안의 승마애호가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시민들이 경기를 보기 위해 모여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마술협회의 주최로 열린 승마애호가경기에는 마술협회 회원들과 애호가들이 참가하였다.

가을철승마애호가경기는 승마유회경기와 말조종기술경기, 애호가경마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어머니당의 다심한 은정속에 마련된 승마모와 승마복을 가뜰하게 차려입고 말안장에 오른 선수들의 이채로운 모습은 경기장의 분위기를 한층 돋구었다.

학생소년들과 청년들이 승부를 겨루는 승마유회경기와 말조종기술경기가 벌어진 실내승

마훈련장이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떠들썩하였다.

승마의 첫걸음을 뗀 나 어린 선수들이 작은말유회경기에 참가하여 좁은 주로와 장애물들을 극복하면서 신바람나게 내달리는 모습은 그대로 그 옛날 전장에서 말을 타고 용맹떨치던 《무사》, 《소년장수》를 방불케 하였다.

오늘로브종말유회경기에 참

가한 학생들은 승마의 세계를 정복해가는 자랑을 안고 말타고 칼로 왼편넘어뜨리기, 그물안에 공널기 등의 기교동작들을 대담하면서도 재치있게 수행하여 사람들에게 기쁨을 안겨주었다.

말조종기술경기도 관중의 이목을 끌었다.

선수들은 평보와 속보, 구보를 배합하면서 작은원돌기,

큰원돌기, 라선형돌기, 사면행보 등의 동작들을 원만히 수행해나가며 평시의 승마운동을 통하여 편마해온 자기들의 높은 마술을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선수들이 구보로 달리는 말을 능숙하게 조종하며 훌륭한 경기장면들을 펼쳐보일 때마다 관중자들은 환성을 울리며 열정적으로 응원하였다.

관중의 회열과 랑만, 기쁨과 흥분을 돋구며 애호가경마가 벌어졌다.

기마수들이 청춘의 슬기와 용맹을 안고 준마에 박차를 가하며 주로를 쓴살같이 누버나 가자 관중자들은 저도 모르게 자리를 박고 일어나 탄성을 울리며 열렬한 박수갈채로 그들을 고무해주었다.

가을철승마애호가경기가 끝

난 후 미림승마구락부 기마수들의 경마에 대한 추첨도 진행되었다.

시상식에서는 순위가 발표되고 해당한 시상이 있었다.

가을철승마애호가경기는 미래와 그 추종세력들의 전례없는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속에서도 세계가 보란듯이 사회주의문명강국의 높은 령마루를 향하여 질풍같이 내달리는 공화국인민의 불굴의 기상과 행복하고 락관에 넘친 모습을 잘 보여주었다.

본사기자



# 사회제도에 비끼는 청년들의 두 모습

공화국에서는 세계적으로 팔치거리인 청년문제가 빛나게 해결되어 청년강국의 존엄과 위용을 높이 떨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원수님께서 주체104(2015)년 10월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공식에 참석하시어 역사적인 연설을 하시면서 당에서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과정을 보면서 제일 기쁘게 생각하는것은 발전소연계가 완공되고 백두산지구의 긴장완전력문제를 해결할수 있게 된것보다 우리 청년들이 발전소건설을 통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의도로 하나의 사상으로 무장되고 더 굳게 단결된것이라고, 이것이 제일 중요한것이며 우리에게 있

어서 제일 큰 성과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절세위인의 사랑과 믿음속에 공화국에서 태어난 시대어들은 얼마나 가슴부풀게 하는가.

청년강국, 선군청년문화, 영웅청년문화, 백두산영웅청년정신...

언제인가 평양을 방문한 한 외국인사는 청년들의 쾌활한 외모를 보고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자기 령도자를 위하여 총폭탄이 되려는 이처럼 훌륭한 청년들은 세상에 없을것이다. 정말 조건청년들은 자기 령도자에 대한 한없는 충실성을 지니고있다. 조선청년들의 심장은 모두 해불처럼 활활 타오르고있다.》

이것은 비단 그 한사람만의 심정이 아니다.

오늘 세상사람들은 환경위기, 식량 및 에네르기위기, 물위기와 같은 21세기 인류가 직면한 엄중한 위기보다 더 심각한 난문제가 나라와 민족의 앞날을 떠메고나갈 건전한 새 세대가 준비되어있지 못하고있는것이라고 개탄하고있다.

청년문제의 심각성을 청년들의 암울한 사회적 처지와 관련된 말들이 많이 생겨나 류포되고있는데서도 잘 나타나고있다.

남조선에서도 대학졸업 후 취업에 실패하여 실업자가 되고 대출받은 학비를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청년들을 가리키는 《청년실신》, 장기간 미취업자라는 뜻의 《장미족》, 20대의 90%는 백수(직업없는 사람)라는 뜻에서 《이구백》, 20살도 되

기 전에 직장에서 쫓겨난다는 뜻에서 《이퇴백》 등 청년들에 대한 별의별 상징어들이 나돌고있다.

《문명》을 자랑하는 미국의 실태도 다를바 없다. 경제위기속에 허덕이고있는 미국에서는 《부메랑족》이라는 용어가 통용되고있다.

미국에서는 25~34살의 젊은이들중 정해진 직업에 취직하지 못하고 부모들이 살고있는 집으로 돌아오는 《부메랑족》의 비율이 3명당 1명에 달한다고 한다.

이런 상징어들이 나돌고있는 사회에서 청년들의 정신상태가 어떠하겠는가.

미국의 로스앤젤스의 한 살림집에서 20대의 청년이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누이동생을 총으로 쏘

아죽인 사건을 비롯하여 이 나라의 곳곳에서 청년들에 의한 살인사건이 매일과 같이 일어나고있다.

비단 미국뿐이 아니다. 일본에서도 청년들이 소름끼치는 살인범죄를 거리낌없이 감행하여 사회계의 경악을 자아내고있다.

19살 난 청년이 한 살림집에 뛰어들어 70대의 늙은이를 죽였는가 하면 18살 난 청년이 자기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마구 칼질을 하여 무참히 살해하였다.

부패타락과 각종 범죄를 일삼는 청년들을 두고 부르조아정객들까지도 사회의 난문제라고 개탄하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이렇게 《청년》이라는 말이 고통과 악의 대명사로 불리우고있는것이 자본주의사회의 현실이다.

예로부터 자식들이 구실을 못하면 집안이 망하고 청년들이 구실을 못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하였다. 그러니 자본주의사회의 앞날이 과연 어떠하겠는가 하는것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사회제도에 비끼는 청년들의 판이한 모습을 통해서도 암담한 자본주의사회의 현실과 사회주의조선의 창창한 미래를 대비적으로 그려보게 되는 것이다.

얼마전에 진행된 제21차 전국체육과학기술성과 전시회에서는 조선사람의 체질적특성과 자체의 실정에 맞는 특색있고 실용적인 훈련기재들이 많이 전시된것으로 하여 참관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장자산체육단에서 전시한 스키조약훈련기재도 그중의 하나이다.

이 훈련기재는 스키 선수들이 자유락하식공중조약을 신속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 창안한 훈련기재이다.

선수들이 스키를 타고 지체내리는 경사각과 거리, 가속도 등을 과학적으로 반영하여 설계된 스키조약훈련기재는 실내조건과 야외조건에서 리용할수 있게 간편하면서도 실용성있게 제작되었다.

이 기재를 창안한 장자산체육단 스키감독 리순학은 지난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원수님께서 《마식령 스키경기-2016》을 관람하시면서 세계적으로 스키운동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그 기술도 급속히 발전하고있는데 맞게 스키종목을 하루빨리 세계적수준에 끌어올려 국제경기장에서 당당히 우승해야

한다고 하신 말씀을 받고 이 기재를 창안하였다고 말하였다. 그는 스키종목은 사람들에게 용감성과 대담성을 키워주고 민첩성도 높여주며 체력을 전면적으로 발달시킬수 있는 체육종목이라고 하면서 이 훈련기재를 창안하는 과정을 통하여 앞으로 얼마든지 세계적인 스키강자들을 키워낼수 있다는 신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자기의 심정을 이야기하였다.

함흥모방직공장에서 전시한 축구경기장용 인공잔디도 참관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 공장에서 생산한 인공잔디는 지난 시기의 인공잔디에 비해 한결 포근하고 탄력있는 느낌을 주는것이 특징이다.

실지로 인공잔디에 올라 밟아도 보고 당겨도 보면서 참관자들은 확실히 질감이 훨씬 개선된것이 알린다고 말하였다.

나라의 체육사업발전에 하나라도 더 이바지하려는 많은 사람들의 애국일념과 고심어린 탐구가 어린 전시물들은 보는것마다 자기의 힘과 지혜가 제목을 하루빨리 세계적수준에 끌어올려 국제경기장에서 당당히 우승해야

## 특색있는 체육기재들

본사기자 김 춘 경

본사기자 강 류 성



평양산원 유선중앙연구소

# 새 기술, 새 제품개발을 힘있게 추동

—평양국제가구 및 건재부문 과학기술전시회—

오늘 여러가지 건설재료와 가구들에 대한 사람들의 요구수준은 날이 높아가고있다.

이런 요구를 반영하여 얼마전 과학기술전당에서는 평양국제가구 및 건재부문 과학기술전시회가 진행되었다.

이번 전시회에는 공화국을 비롯하여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의 100여개 단체들이 출품한 다기능화된 가구들과 인체의 건강과 환경보호에 유리한 특색 및 기능성건재제품들이 전시되었다.

이번 전시회에서 참관자들의 관심을 끈것은 여러가지 다기능화된 가구들이었다.

대동강가구공장과 대성산가구공장을 비롯한 여

러 단위들에서 출품한 이불장, 옷장, 침대와 같은 침실가구들과 찬장, 가시대, 밥상과 같은 부엌가구들은 그 모양과 형식이 독특하면서도 질이 높은것으로 하여 참관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특히 식사인원수에 따라 크기를 임의로 조절할수 있는 식탁과 그 크기와 형태를 임의로 변화시킬수 있는 TV 탁을 비롯하여 용도와 크기 등에 맞게 사용할수 있는 다기능화된 가구들은 참관자들의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함경남도에서 출품한 건물방수제와 격자무늬수지천장판, 변성접착제를 비롯하여 건설물의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할수 있는 건재제품들도 사람들

의 눈길을 끌었다.

이번 전시회에는 인체의 건강과 환경보호에 유리한 특색 및 기능성건재제품들도 전시되었다.

영광가구합회사에서 내놓은 건강가구—지구유해과차침대와 조선국제여행사에서 출품한 특색변기, 원봉합작회사가 출품한 질석판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수 있다.

각종 유해로운 전자파들을 막아줌으로써 건강에 좋고 잠도 충분히 잘수 있게 해주는 지구유해과차침대와 환경오염을 막고 위생성을 보장해주는 특색변기도 특색있는 것이었다.

원봉합작회사의 한 일군은 《질석판은 천연광물인 질석판을 주원료로 만든

인체에 유익한 다기능성을 가진 21세기 특색건재라고 할수 있다.》고 하면서 보온 및 환균, 항습도 작용이 뚜렷하고 건강에도 좋은 질석판에 대한 사람들의 수요가 날로 높아가고있다고 이야기하였다.

이밖에도 전시회에는 장식어항과 흡진기, 야외갈판을 비롯한 각종 생활용품들과 장식품들도 전시되었다.

평양국제가구 및 건재부문 과학기술전시회는 가구 및 건재부문에서 이룩한 과학기술성과와 경험들을 교환하고 나라들 사이의 친선과 협조를 강화하며 새 기술, 새 제품개발을 추동하는 좋은 계기로 되였다.

본사기자 박 철 남



## 단상 검진조사표

퇴근하여 집에 들어서니 시어머니가 기척도 못느끼게 손에 든 종이장을 유심히 들여다보고있었다.

《어머니!》

그제야 눈길을 든 시어머니가 종이장을 내밀며 젖은 음성으로 말하는 것이었다.

《담당의사선생이 집집마다 가져다주더구나. 세밀하게 검사해보고 구체적으로 기입하라고 당부하더라.》

나의 눈에 《유선암검진조사표》라는 글발이 안겨왔다.

— 다음의 증상이 있으면 해당 조항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

...

글줄을 읽어내려갈수록 고마움에 가슴이 달아올랐다.

문득 얼마전 대성구역 룡흥2동의 한 여성이 이 검진조사표에 의해 유선암을 조기발견하

고 평양산원 유선중앙연구소에서 치료받아 완치된 일이며 그의 딸인 조선인민군 병사 김옥경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올린 편지구절이 떠올랐다.

《저는 영원히 잃을뻔한 어머니를 살려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이 너무 고마워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이 글을 올립니다.》

경애하는 원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우리 사회주의제도의 무상치료의 혜택과 고마운 당의 품이 아니었다면 불치의 병에 걸렸던 저의 어머니가 돈 한푼 들이지 않고 어떻게 살아날수 있었겠습니까...》

진정 무상치료제의 혜택, 병이 날세라 보살펴주는 그 사랑, 그 은정이 있기에 우리 여성들이 가정의 꽃, 나라의 꽃으로 활짝 피고있는것이

나라.

이런 생각을 하느라니 새로 일떠선 평양산원 유선중앙연구소를 돌아보시던 그날 산원일군들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기 바란다는 가슴뜨거운 친필을 보내주신 아버지장군님의 당부를 한시도 잊지 말고 인민의 총부로서서의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야 한다고 절절히 말씀하시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안겨왔다.

밖에서는 행복의 요람을 없애버리려고 적대세력들이 제재와 암살의 광기를 부려대고있지만 이 땅에서는 절세위인들의 따사로운 인민사랑이 있어 사회주의보건제도의 혜택이 오늘도 모든 여성들, 아니 온 나라 인민들에게 속속들이 미치고있는것 아닌가!

평양시 모란봉구역 리숙화

# 세계를 소란하게 만들고 있는 《북핵 위협론》의 부당성을 까밝힌다

지금 세계는 미국이 주도하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초강도의 제재압박소동에 휘말려 전례없이 부산스럽게 끓고있다.

올해에만도 유엔안보리사회에서는 세차례의 가장 악랄한 대조선 《제재결의》들이 조작되었으며 미국은 거듭되는 《대통령행정명령》과 형형색색의 《제재법》들을 련속 고안해내면서 반공화국압박분위기를 선도하고있다.

미국대통령이라는자가 백악관업무탁에 우리에게 대한 갖가지 정치군사적압살방안을 올려놓고 《완전과피》니, 《단 한가지 선택만이 남아 있다.》느니 하며 객기를 부려대는가 하면 미군부호전광들은 핵항공모함들과 핵동력잠수함, 핵전략폭격기편대들을 련이어서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들이밀면서 미치광이피수의 호전적망발을 물리적으로 뒤받침하고 있다. 이 시각도 조선동해와 서해에서는 미국의 핵동력항공모함 《로날드 레간》호와 3척의 핵동력잠수함을 비롯하여 수십척의 크고작은 함선들이 참가하는 류레없는 련합해상훈련이 벌어지고 여기에 스텔스전투기인 《F-22》와 《F-35》, 전략폭격기 《B-1B》까지 동원되어 정세수위를 최대로 끌어올리고있다.

합법적인 주권국가인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과 존엄, 생존권과 발전권을 엄중히 침해하고 압살하려는 이

전대미문의 범피행위는 미국이 제창하는 《북핵위협론》에 의해 정당화되고 합리화되고있다. 우리의 핵보유가 국제사회에 대한 《엄중한 도발》로, 세계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된다는 얼토당토않은 락인을 찍어 우리를 죄인취급하듯 하면서 초강도제재가 마치고 그에 따르는 응당환 《형벌》로 되는듯이 둔갑시켜 국제무대에서 우리 공화국을 영원히 고립배장시키려는것이 미국의 음흉한 기도이다.

가장 위험한 거짓은 위장한 진리라는 말이 있다.

력사적이며 현실적인 시각에서, 긍정하고 객관적인 립장에서 그리고 국제사회의 보편타당한 질서의 견지에서 볼 때 《북핵위협론》이라는것은 전혀 성립될수 없고 원인과 결과가 완전히 뒤집혀졌으며 주객이 전도된 거짓중의 최대거짓이다.

문제는 미국이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확산시키는 이 황당무계하고 엄청난 거짓에 적지 않은 나라들이 말려들면서 조선반도는 물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완전히 파괴되고 예측할수 없는 파국적후과가 닥쳐들고있는 것이다.

진정으로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관심이 있다면, 정의와 진리에 대한 갈망이 있다면 미국이 떠드는 《북핵위협론》의 진상부터 독바로 알아야 한다.

## 누가 누구를 위협하는가

《북조선을 완전히 파괴하는것이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미국은 기꺼이 준비되어있으며 의지를 가지고있고 그렇게 할 능력이 있다.》

이것은 올해 유엔총회마당에서 미국집권자가 우리 공화국을 겨냥해 한 연설내용의 한 대목이다.

세계최대의 공식외교무대에서 그것도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미국의 최고통수권자가 췌친 이런 위협천만 한 폭언을 무심히 스쳐보낸 사람들은 아마 없을것이다.

미국의 주요언론들까지도 트럼프의 망발을 두고 정치인이라기보다는 깡패두목처럼 들린 연설, 혼란스럽고 호전적이며 북수주의적주장으로 일관된 연설이라고 평하면서 가뜰이나 긴장된 조미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조선반도와 국제정세를 심각한 위협에 빠뜨릴것이라고 우려하였다.

이렇듯 매일과 같이 우리 공화국을 향해 협박과 공갈을 퍼부으면서 뻔뻔스럽게 《북위협론》을 떠들어대고있으니 미국의 위정자들이 위협이란 단어의 의미나 제대로 알고있는가 하는것이다.

원래 위협이란 남을 협박하거나 위협하게 만들어 마음을 놓을수 없게 한다는 뜻이다. 한마디로 일방이 타방의 언행이나 행동으로부터 신체나 소유물, 근본이익이 침해당할 위협을 느낄 때 위협을 받는다고 한다.

국가간의 관계에서도 한 국가가 다른 나라들로부터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 등을 침해당할 때 위협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위협이 저들의 이익과 야욕만을 일방적으로 추구하면서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을 제멋대로 희생시키는 침략자, 제국주의자들로 부터 온다는것은 자명한 리치이다.

이렇게 놓고볼 때 우리를 《위협》으로 매도하는 미국식론리의 허접은 숨길수 없이 그대로 드러난다. 우리는 백년속적인 미국의 반공화국침략책동은 걸음마다 짓부시며 나가있지만 세계의 다른 그 어떤 나라도 침략해본 일이 없으며 그런 시도조차 해본적이 없다. 오로지 자주와 정의의 길을 지향하며 자체의 힘으로 발전진로를 개척해온 우리 공화국은 그 누구를 결코들거나 해치기는커녕 다

른 나라와 민족들을 형제적의리와 국제적도의에 기초하여 성심성의로 도왔으며 그 신성한 력사의 기록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우리를 다르며 력사적으로 우리 공화국에 대하여 가장 끈질긴 위협을 가해온 장본인이다.

인디안을 멸종시키고 그 피로 물든 땅에 아메리카합중국의 문패를 빼것이 달아놓은 그때로부터 다른 나라와 민족을 끊임없이 위협공갈하고 침략하는것을 국가의 존재방식으로, 생리로 하고있는 미국은 동방의 붉은 기치로, 반제주주의 성세로 솟아오른 우리 공화국을 한사코 부정하면서 온갖 정치군사적압박과 침략전쟁으로 그 성스러운 국호를 지구상에서 없애보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몇개의 전쟁을 치르기도 남을 방대한 침략무력과 핵전쟁자산을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항시적으로 배비해놓고 해마다 《년례적》이니, 《방어적》이니 하는 간판밑에 대규모적인 반공화국합동군사연습을 끊임없이 벌리면서 우리의 평화적발전을 한사코 가로막고있는 미국이다.

더우기 지난 세기 50년대의 조선전쟁에서 원자탄사용기도를 꺼리낌없이 드러냈던 미국은 오늘까지도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위협과 공갈을 한시도 멈추어본적이 없으며 《미국우선주의》와 《미치광이전략》을 공공연히 떠드는 트럼프정권시기에 와서는 더이상 참을수 없는 극한점에 이르르고있다.

수십년간에 걸친 우리 공화국에 대한 위협은 내외가 공인하는바와 같이 명실공히 미국의 국가정책의 기초인 세계지배야망과 패권추구에서 출발하고있다.

랭전시대는 동방의 사회주의진영을 억제하기 위한 전초기지로 삼아보려고 우리 공화국에 끊임없는 침략위협을 가해왔다면 랭전종식후에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패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세계제패의 야망을 실현하는데 방해로 되고있다면 우리를 기어이 제거해버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을 미국이다.

미국과 운명적으로 맞서게 된것때문에, 한두해도 아니고 수십년세월

이어지는 제국주의피수와와 대결때문에 우리 인민이 당한 정신적, 물질적피해와 손실을 어찌 단순한 수자로 표시할수 있겠는가.

초보적인 론증으로써도 미국이 일방적인 가해자이고 위협의 장본인이며 우리는 최대의 피해자라는것을 명백히 알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뜬 장님행세를 하면서 미국의 일방적주장대로 우리를 부두부두 《위협》의 장본인으로 몰아대고 지어 피고석에

## 조선의 선택은 정당하며 시비거리로 될수 없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집요하게 설파하는 《북핵위협론》에서 골자는 우리의 핵보유의 《불법성》에 관한 문제이다.

미국은 우리의 핵과 미싸일개발이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이니, 《유엔결의위반》이니 하고 여론몰이를 하면서 반공화국총공세에 국제사회가 합류하라고 강박해나서고있다.

이에 대하여 외국의 한 조선문제전문가는 《나무는 뿌리가 있고 물은 근원이 있는것처럼 미국의 랭전적사교와 대조선적대정책이야말로 북핵문제의 근원》으로 된다고 평한 바 있다.

우리는 여기에서 지금까지 수백수천번 밝힌 우리 핵보유의 정당성에 대하여 더이상 론하려 하지는 않는다.

다만 유엔헌장 그 어디에도 주권국가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구속하는 그 어떤 제재나 압박을 정당화하는 조항은 없으며 비핵국가가 정당방위를 위하여 핵보유의 길을 나가는데 대하여 다시금 언급하지 않을수 없다.

우리의 핵보유에 대하여 말하려면 웅당 우리 공화국이 랭전종식후 새롭게 부단한 엄혹한 환경에서 부득이하게 자위적핵개발과정을 거쳐왔으며 병진로선을 국가발전의 기본전략으로 틀어쥐고나가지 않으면 안되게 된 력사적배경에 대하여 옹계 리해할 필요가 있다.

핵보유국들사이의 대결구도가 국제정치的基本축을 이루고있었으며 핵대 핵의 균형속에서 평화가 유지되던 랭전시기에는 우리가 막대한 국력이 소모되는 핵무력건설의 길을 추구해야 할 필요가 제기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전 쏘련을 축으로 하는 사회주의진영이 무너지고 그에 따라 세계최대의 핵보유국인 미국의 가증되는 핵공갈과 위협, 침략적인 핵전쟁책동에 단독으로 맞서 자기의 사상과 리념, 제도를 보위해야 하는 첨예한 대결국면에서 우리의 선택은 달리 설정될수 밖에 없었으며 그에 대해서는 세계지성과 량심이 공인하고있다.

그렇다고 하여 우리가 처음부터 모든것을 뿌리치고 핵개발에만 몰두하여온것도 아니다. 우리는 세기를 두고 이어진 조미적대관계를 청산하고 공화국의 안전과 평화로운 발전의 길을 모색하기 위하여 할수 있는 모든것을 다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진행된 조미대화의 력사와 과정은 세상에 널리 알려져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떠했는가. 미국의 시간끌기전략, 《전략적인내》에 의해 무수한 대화와 협상은 아무런 결과도 남기지 않았다. 오히려 우리에게도 침략적본성이 변하지 않는 약마의 제국과는 평화적인 방법에 의한 관계개선을 기대한다는것이 어리석은 일이며 자기의 존엄과 운명을 해치는 자멸로 될뿐이라는 심각한 교훈만을 남겨주었다.

올려놓으려는것은 무지하고 비리성적인 망동이며 국제정치 수준과 관계되는 수치스러운 처사가 아닐수 없다.

국토의 넓이나 인구수에 있어서 대비도 되지 않는 조선이라는 하나의 국가를 대상으로 덩치큰 날강도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어중이떠중이들이 《제재》와 《압박》의 칼을 휘두르면서 우리에게 의한 《위협》을 떠드는것은 소학교학생들에게도 통할수 없는 꾀변이다.

우리의 핵보유는 바로 이런 력사적과정의 산물이며 미국의 오만무례하고 횡포무도한 전횡과 위협은 우리로 하여금 총력을 다하여 국가핵무력완성에 박차를 가하게 한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는것을 새겨보아야 한다.

오늘 미국이 《북핵위협론》을 집요하게 류포시키는데는 승산없는 조미대결구도를 조선 대 국제사회의 대결구도로 바꾸어 국면전환을 이루어 보겠다는, 우리에게 대한 제재압박에 세계의 크고작은 나라들을 강박하여 동원하고 그 힘을 빌어 우리 공화국을 기어코 무너뜨려보겠다는 보다 음흉하고 교활한 속내가 숨겨져있다. 비렬하기 그지없는 이러한 미국의 《북핵위협론》에 동조하는 부류에는 여러 갈래가 있다.

미국의 손아래동맹자로서 그 턱밑에 붙어 살아가는것을 생존전략으로 하고있는 친미국가들이 있는가 하면 미국의 요구가 강도적인것을 뻔히 알면서도 반발하면 보복당할것이 두려워 추종하는 주대없는 나라들도 있다. 우리의 선택이 정당하다는것을 인정하면서도 핵대국중심의 현 국제질서가 유지될것을 바라는 리기적속심으로부터 미국과 손잡는 대국들도 있다.

## 《위협해소를 위한 좋은 방안》은 무엇인가

우리가 핵무력완성의 결승레프를 뚫지 못하게 하겠다고 미국이 피를 물고 덤벼드는 가운데 《북핵위협해소를 위한 좋은 방안》이니 뭐니 하고 론의가 분분한것은 사실이다.

백악관은 련일 《대화무용론》을 제창하며 무모한 군사적타격과 제재압박만이 그 유일한 해결방도로 된다는 꾀변을 내돌리고있다. 일각에서는 《대북》군사공격이 지역의 평화안전까지 침해하는것이므로 반대한다고 하면서도 더욱 강도높고 물샴없는 경제제재와 정치외교적압박으로 우리가 손들고나앉게 해야 한다고 목청을 돋우고있다.

단언컨대 이 모든것은 해결방도가 아니며 사태를 더욱 복잡하게, 첨예하게 만들고 조선반도는 물론 세계를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열핵대전의 불구름속으로 몰아가는 위협천만한 도박으로 될뿐이다.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제재와 압박은 천추에 용납 못할 반인륜적이며 야만적인 행위로서 언젠든 계산되고야말 만고죄악이다.

전쟁도 아닌 평화시기에 무고한 우리 아이들과 녀성들, 로인들을 포함한 전체 인민이 잔인무도한 제재와 경제봉쇄의 대상으로 되어야 할 그 어떤 리유와 근거도 없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우리의 핵보유를 문제시하면서 이런 반인륜적제재압박을 지속적으로 가하여 우리 인민들속에서 불만과 동요가 일어나고 이것이 핵포기로 이어지기를 고대하고있지만 파리가 꼬끼리잡아먹는 꿈을 꾸는것이나 다름없는 망상이다.

이들은 각이한 속심과 리해관계로부터 우리의 핵보유를 《세계평화에 대한 위협》이라고 한목소리로 시비하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묻지 않을수 없다.

자존심도 체면도 다 집어던지고 루추하게 미국에 빌붙어 살아가는것이 진정 국제평화를 위한 길인가. 핵대국들이 세계정치의 패권을 독점하고 약소국가들의 존엄과 리익을 유린하는것이 공정한 국제질서인가.

가장 자주적으로, 가장 용기있게 이 모든것에 반기를 든 우리 공화국의 핵보유는 인류공동의 정의로운 미래를 위한 결단으로서 그 어떤 비난이나 공격이 아니라 적극적인 지지찬양을 받아야 마땅하다.

우리의 핵은 침략자, 도발자들에게는 《위협》이 될수 있을지언정 세계 평화와 안전에는 위협이 되지 않는다. 우리에게 대한 침략과 도발에 가담해나서지 않는다면 아시아와 아프리카, 아메리카와 유럽의 어느 나라도 《북핵위협》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우리의 핵은 오직 침략과 폭제의 핵을 제압하는 정의의 역적력이며 바로 여기에 우리 핵보유의 정당성과 대의명분이 있다.

핵을 가졌다고 하여 인류의 평화에 위협이 된다면 핵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들부터 핵을 내려놓고 세계적인 비핵화에로 나가면 될것이다. 우리의 핵을 위협이라고 하기 전에 수천기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그것으로 우리 공화국과 수많은 비핵국가들의 안전과 운명을 통락해온 저들의 핵부터 폐기시키면 될것이다. 이것이 가장 공정한 문제해결의 순리이다.

수천만인민의 존엄과 안전, 리익을 고수하고 자주적발전의 길을 열어어나가기 위한 우리 공화국의 선택은 천만번 정정당당하며 누구도 우리의 국가핵무력강화를 《위협》이니 뭐니 하며 함부로 시비해나서지 말아야 한다.

공화국이 창건된 첫날부터 제재와 압박이라는 총포성없는 전쟁을 항시적으로 겪으며 살아왔고 그속에서 자강력을 생존과 발전의 동력으로 키워온 우리 인민이다. 설사 이 땅에 단 한사람이 살아남는다 해도 미제침략자들과 끝까지 싸워이기기 위하여 억척으로 버려온 정의의 핵보검을 절대로 놓지 않을것이며 최후의 승리로써 피의 대가를 천백배로 받아낼 각오와 의지가 불타고있는 우리 군대이고 인민이다. 철부지 아이들까지도 사랑은 비록 부족해도 총알이 없으면 안된다는 철리를 생의 좌우명으로 새기며 자라고있다는것을 《제재만능론》자들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군사에서는 백치나 다름없는 백악관의 장사군나부랭이가 감히 《폭풍전 교요》니, 《참수작전》이니 하고 떠들지만 이런 허장성세가 불러올 후과가 무엇인가를 숙고하고 입부리를 놀려도 잘 놀려야 할것이다.

우리의 핵조건경은 침략과 전쟁의 아성인 백악관부터 겨냥하고있으며 하루강아지 범 무서운줄 모르고 날뛰는 무모한 전쟁광신자에게 수습의 여지가 없는 일차적타격을 가해야 한다는것이 우리 군대의 노호성이다. 조미사이의 대결을 핵으로 종결지으려 한다면 그 엄청난 불세례를 다름아닌 자기자신부터 맛보아야 한다는것을 백악관의 미치광이는 명심하는것이 좋을것이다.

(6면으로 계속)

# 핵조준경안으로 게바라 들어온다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의 북침전쟁광기가 극도에 달하고있다. 얼마전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은 조선동해와 서해에서 침략적인 연합해상훈련이라는것을 감행하였다. 이번 전쟁연습에는 미국의 핵항공모함 《로널드 레건》 호라격단과 핵잠수함, 남조선군의 이지스수축함 등 각종 전투함선 40여척과 핵전략폭격기, 스텔스전투기를 비롯한 공중무력까지 동원되었다. 연습에 미국의 핵전략자산들이 총동원된것은 그 위험성을 잘 말해주고있다.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은 이번 연합해상훈련이 공화국에 대한 《강력한 군사적경고메세지》, 《실제적타격행동의 과시》로 될것이라는 엄포도 늘어놓았다. 이번이 아니다. 미국은 며칠후에 남조선내에 있는 미국인들을 해외로 신속히 대피시키기 위한 훈련도 벌려놓으려 하고있다. 전쟁전야에만 볼수 있는 부산스러운 움직임이

아닐수 없다. 미국과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의 도발적인 불장난 소동은 북침전쟁기도의 뚜렷한 발로로서 가뜩이나 첨예한 조선반도정세를 최대로 격화시키고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엄중히 위협하는 국악무도한 군사적도발행위이다. 엄중한것은 미당국자가 공화국을 자극하는 미치광이폭언들을 마구 내뿜고 백악관과 미국방성에서 공화국의 최고수뇌부를 노린 《잠수작전》을 위한 군부우두머리들의 군사적모의가 빈번해지고있는것과 때를 같이하여 이번 훈련이 벌어진것이다. 이것은 내외호전세력의 북침전쟁도발책동이 도를 넘어섰으며 군사적압박이 무모한 실전단계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있다는것을 보여주는것이다. 미국이 핵전략폭격기편대를 조선반도상공에 켜면 들이밀고있는것도 단순한 군사적위협이 아니라 임의의 시각에 공화국에 대한 불의의 선제타격을 가하기 위해서라는

것은 알만 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다. 조미사이의 대결과 군사적대치상태가 그 어느때보다 첨예한 현 정세하에서 조선반도에 수많은 대병력과 최신군사장비들을 동원하여 벌리는 도발적인 군사행동이 그대로 공화국을 반대하는 전면전쟁으로 넘어가지 않으리라는 담보는 그 어디에도 없다. 구름이 잦으면 비가 오듯이 미국과 남조선호전분자들의 오만무리한 군사적도발은 불피코 총돌을 가져올수 있으며 세계를 커다란 핵참화속에 몰아넣을수 있다. 극도에 달한 내외호전광들의 핵전쟁도발책동은 공화국이 병진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위의 핵무력을 백방으로 강화해온것이 얼마나 정당하고 현명하였는가를 다시금 뚜렷이 확인시켜주고있다.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이 대규모침략무력을 동원하여 위협의 강도를 최대한으로 높이고있지만 공화국은 그것을 국가핵무력완성의 종착점으로 향하는 공화국의 전진에 걸림

자들의 단말마적발악으로 밖에 여기지 않는다. 공화국은 이미 미국이 《완전과피》 폭언을 늘어놓으며 공화국의 최고존엄에 감히 도전해나섰을 때 그것을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도발자들을 불로 다스릴것이라는 단호한 의지를 천명하였다. 공화국에는 미국이 강요하는 그 어떤 전쟁에도 다 대처할수 있게 만단의 준비가 갖추어져있다. 공화국을 해치려는 침략자, 도발자들은 하늘과 땅은 물론 바다에서도 백두산강군의 무자비한 불세례를 면치 못하게 될것이다. 미국에 대한 사무치는 증오와 멸적의 의지가 서린 정의의 핵조준경안에 스스로 게바라 들어오는 호전세력들의 망동은 제 무덤을 제가 파는 어리석은 행위이다. **본사기자 주 광 일**

시

## 진짜 불맛을 보게 되리라

리 송 일

언제 타죽을지도 모르고 오글오글 등불에 모여드는 부나비들처럼 기어들었다. 조선반도의 동, 서해에 늪다리미치광이에게 내몰린 전쟁광들이 핵전쟁장비 굶어모아가지고

—《강력한 군사적경고메세지》다  
—《실제적타격행동의 과시》로 될것이다  
주체단위력에 질겁한 단말마적발악인가  
우리 땅, 우리 하늘을 향해 허세를 부리며 망발을 뱉치거나  
미국의 늪다리미치광이를 반드시, 반드시 불로 다스릴것이라 하신  
우리 원수님의 선언  
설쳐대는 침략자들 초토화해버릴  
멸적의 활화산이 우리 가슴에 뚫는다

이제는 우리 눈앞에 있다  
악의 제국을 재더미로 만들어버릴  
우리 국가핵무력완성의 종착점이  
상상밖의 무자비한 타격으로 징벌할  
도발자, 침략자의 물결이 흰히 보여  
온다

똑똑히 알라, 미제와 그의 사환군들이  
너희들의 핵항공모함, 핵잠수함, 핵전략  
폭격기...  
그것은 우리의 1차격멸의 화력에  
비참하게 나딩굴 파철더미일뿐  
트럼프가 짓어낸 《완전과피》,  
《질멸》  
그것은 바로 너희들의 운명이다

주체조선의 존엄과 명예를 걸고  
우리는 단호히 선고하노니  
결단코 용서치 않으리라 징벌하리라  
최후발악의 광란 부리는 침략자들이  
네놈들은 진짜 불맛을 보게 되리라

## 약자의 허세 - 《전면밀착식 대조선압박외교》

(5면에서 계속)  
조미사이의 문제해결의 방도를 론하면서 누군가는 《방울을 매단자가 방울을 때야 한다.》고 했는데 그 말 한마디는 잘한것 같다. 그래도 여기에는 날로 첨예하고 복잡다단하게 변저지는 조미핵대결을 풀어나갈수 있는 방도가 어느 정도 시사되어있다. 오늘 국제정치의 초점으로 부상된 조미핵대결의 근원은 철두철미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있다. 얼마전 온갖 비리성적인 발언과 광적 망동으로 내외의 비난을 자초하고있는 트럼프가 《북문제는 25년전에, 20년전에, 10년전에, 5년전에 다루어져야 했다. 오바마는 분명히 이를 처리했어야 했다.》고 고아넌적이 있는데 웅당 해결되었어야 할 문제가 왜 오늘까지 풀리지 못했는가에 대한 대답부터 찾는것이 옳을것 같다. 지난 수십년간의 조미대결사를 돌이켜보면 관계개선의 기회와 순간들도 있었지만 모든것이 수포로 돌아가고 원점복귀한것은 명백히 정권은 바뀌어도 불변한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그 원인이 있다. 백악관에 들어앉았던자들치고 우리를 어떻게 하나 붕괴, 압살, 굴복시키려는 헛된 망상과 부질없는 시도에 매달리지 않았던자들이 있는가. 아직은 정치도 군사도 못내기인 트럼

프가 무슨 큰 일이라도 칠것처럼 《우리는 북문제가 이대로 가도록 허용할수 없다. 무엇인가를 해야만 한다.》고 떠벌이고있지만 지금처럼 여전히 실패한 궤도를 따라 핵전쟁기관차를 몰아간다면 아메리카합중국의 멸망이라는 종착점에 가달을수밖에 없을것이다. 트럼프행정부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결말이 전임자들과 다를것이 있다면 대 집권자들의 적대시행적은 우리의 핵개발과정을 추동하는 결과로 이어졌지만 이제는 실전을 통해 우리 핵무력의 최종완성을 검증해주는 치명적패배로 막을 내리게 될것이라는것이다. 미국식사고와 행동의 기초는 실용주의이다. 그 실용의 관점에서 볼 때 아무리 지랄발광해도 되돌릴수 없는 조선의 핵보유를 차라리 용기있게 인정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할수 있는 길을 찾는것이 그래도 합리적이지 않겠는가. 우리는 충고를 할뿐 강요는 하지 않는다. 선택은 어디까지나 미국의 몫이다. 조선의 핵은 자주나 패권이냐를 판가름하는 세계정치의 분수령에서 자기의 정의로운 승리로써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어놓게 될것이다. 정의는 작아도 태산을 움직이며 시대와 역사의 모든 진보는 반동의 거대한 힘에 도전하여나선 정의로운 출발에서 이루어졌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정 현**

최근 미국이 공화국을 완전히 《붕쇄》, 《굴복》시키기 위한 그 무슨 《전면밀착식 대조선압박외교》에 열을 올리고있다. 미국무성은 남조선당국과는 주별로, 일본과는 월 《협의회》라는것을 벌려놓고 《대조선압박전략》을 모의하는 한편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공화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거나 축소할것을 강박하고있다. 공화국을 굴복시키기 위해 온갖 회유와 압박을 다하다 못해 나중에는 그 무슨 《외교관계단절》을 강박하며 세계 각국을 휘젓고 다니는 미국의 유치한 망동은 국가핵무력완성의 마감단계에 들어선 공화국의 무진막강한 국력과 불패의 위상에 질겁한자들의 단말마적발악에

불과하다. 《세계유일초대국》이라고 자처하는 미국이 얼마나 궁색한 처지에 빠졌으면 평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태평양상의 작은 섬나라에까지 쪽박을 내밀고 반공화국제재압박을 구걸하고있었는가 하는것이다. 이를 두고 영국의 한 일간지는 《미국은 더 이상 《유일초대국》이 아니다. 드디어 힘의 한계를 느끼고 팔라를 내흔들며 유치한 구걸을 하고있다. 이것만 놓고서도 미국무는 《외교관계단절》을 강박하며 세계 각국을 휘젓고 다니는 미국의 유치한 망동은 국가핵무력완성의 마감단계에 들어선 공화국의 무진막강한 국력과 불패의 위상에 질겁한자들의 단말마적발악에

다.》고 비평하고있으며 미국회관계자들과 언론, 전문가들속에서도 《전면밀착식 대조선압박외교》는 《약자의 허세》라고 내놓고 조소하고있다. 국제사회는 물론 미국내에서까지 미행정부가 매달리고있는 《전면밀착식 대조선압박외교》를 조롱하면서 조선에는 절대로 통할수 없다는 주장들이 울려나오고있는것은 당연하다. 미국의 협박외교는 국제강패두목의 주먹을 무서워하거나 팔라에 목이 매여 구차하게 살아가는 몇몇 어중이떠중이들에게는 먹혀들지 불라도 제정신있는 나라들에는 통할수 없다. 다른 나라들을 저들에게 닥쳐오는 파국적재앙을 막아주는 방패막이로,

부정의의 공범자로 만들어려는 미국의 흉악한 책동은 세계적구탄과 배척을 면치 못할것이다. 미국의 《전면밀착식 대조선압박외교》에 동조하는 나라들은 미국에 맹종한 처사를 두고두고 후회하게 될것이다. 《전면밀착식 대조선압박외교》라는것은 인류사 주위업의 표대이며 정의의 핵강국, 일심단결의 성새인 공화국에는 한갓 썩은 그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미국이 국제적인 대조선압박붕쇄망을 형성해보려고 갖은 권모술수를 다 써도 주체조선의 정의로운 위업을 가로막을수 없으며 공화국에 대한 국제적지지와 연대성은 더욱 강화되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김 명 성**

## 반트럼프, 반미투쟁본부 결성, 북침전쟁연습반대투쟁에 돌입

남조선인터넷신문 《민족일보》에 의하면 16일 서울의 광화문광장에서 《북침전쟁연습중단! 전쟁미치광이 트럼프 규탄! 반트럼프, 반미투쟁본부》(반트럼프, 반미투쟁본부) 결성집회가 진행되었다. 민중민주당, 평화형성운동본부, 청년저항운동 등 정당, 단체들은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이 북침해상연합훈련을 시작한 이날에 맞추어 집회를 조직하였다. 집회에서 민중민주당

별위원회 위원장은 전쟁위기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미래와 희망에 대해서도 생각할수 없다고 말하였다. 그는 민중민주당의 원정단들이 미국, 도이쉴란드, 프랑스 등 나라들에서 반미반전투쟁을 이어나가 고있는데 대해 언급하면서 전세계의 대다수 사람들이 지금 조선반도정세가 격화되는 원인을 물으면 주저없이 트럼프를 꼽는다고 밝혔다. 자기 당이 오만방자한 트럼프를 꺾고 평화와 통일의 길을 열어가는데

앞장설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집회참가자들은 《반트럼프, 반미투쟁으로 전쟁을 반드시 막아내자!》라는 제목의 격문을 발표하였다. 그들은 격문을 미국대사관에 들이쳤다. 집회참가자들은 《전쟁미치광이 트럼프는 입 다쳐라!》, 《북침전쟁연습 즉각 중단하라!》, 《미국은 싸드 가지고 이 땅을 떠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정부》청사앞까지 시위행진을 하였다. **본사기자**



# 대미추종의 종착점은 천길 낭떠러지이다

앞을 바라볼수록 캄캄하고 갈수록 험산이라면 잘못된 길을 가고있지 않는가 의심해야 한다.

지금 눈먼 망아지 위장소리 듣고 따라가듯 파멸을 향해 전쟁마차를 미친듯이 몰아가는 미국을 무작정 쫓아가고 있는 남조선당국은 잠시라도

멈춰서서 정신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조선반도에 핵전쟁의 불구름이 배회하고있는 지금이야말로 한때 남조선집권자가 필요하다면 미국에 대고 《아니》라고 말할수 있어야 한다던 바로 그런 때이기때문이다.

## 미친 대통령 트럼프의 푸들

트럼프의 험한 입에서 《화염과 분노》, 《완전파괴》, 《절멸》, 《폭풍전의 고요》 등의 잡포대말방이 연일 터져나오고 저들이 진짜로 미쳐버렸다는 것을 증명해보이려는듯 미국이 핵폭격기편대와 핵항공모함타격단들, 핵잠수함과 이지스함들을 조선반도의 하늘과 바다에 편속 들이밀며 무모한 불장난질을 해대고있다.

우리 혁명무력이 세상을 뒤져서라도 찾아내어 박멸해치우려고 버리고있던 표적들이 섬멸의 조문안에 제발로 기여들어 자멸을 청하고있는것이다. 사소한 불씨 하나 튀겨도 불벼락이 터지고 남조선이 온통 썩대밭이 될 판이다.

썩은 고기가 히에나를 끌어온다고 하였다.

야 한다.》, 《최고수준의 압박과 제재를 가해야 한다.》 고 악을 쓰며 강대국들 트럼프가 썩은 제재막대기를 더욱 미친듯이 휘두르도록 부추겨대는것 도 괴뢰당국이다.

지금 미국정가에서는 분노조절장애와 지지불저하로 불안해진 트럼프가 무슨 일을 칠지 모른다, 3차대전을 불러올수 있다, 그의 손에서 핵가방을 빼앗아야 한다, 의회가 대통령이 핵폭격명령을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권한제한

## 창녀취급당하는 가련한 신세

기가 막힌것은 상전에게 그렇듯 야양을 떨며 구세주로 섬기고있지만 뿔 주고 뺨맞는 창녀와 같은 취급을 받고있는 괴뢰들의 가련한 신세이다.

지금 트럼프는 미국이 남조선을 지켜주기때문에 괴뢰들이 이에 대해 매우 고마와하고 극구 환영해야 한다, 남조선이 방위비를 더 내고 《자유무역협정》문제에서 희생양이 되는것은 응당하다고 호통치고있다.

세계여론은 트럼프가 《전쟁이 나도 조선반도에서 나고 수천명이 죽어도 거기서 죽을것》이라고 쉼체 남조선을 전쟁공포에 휘몰아넣고있는 괴뢰들에게 수십억US\$에 달하는 미국산 첨단무기와 미사일방위체계구조를 강요하는데 대해 《조선반도안보환경악화는 미국립장에선 무기판매의 좋은 명분이다.》, 《트럼프가 조선반

도의 긴장이 최고조로 치닫고있는 상황에서 기업가출신다운 특유의 동물적감각을 선보이고 있다.》고 까밝히고있다.

트럼프가 조선반도에 대고 으름장을 놓으면 미국을 향해 북조선에서는 주먹이 날아오고 남조선에서는 돈이 날아온다든 야유도 울려나오고있다.

괴뢰들은 미국발 전쟁의 폭풍이 한번 휩쓸 때마다 남조선주식시세가 어떻게 요동치고 외국자본이 저들의 금융시장에서 얼마나 썰물처럼 빠져나가는가를 살피나 보고 상전의 전쟁장단에 맞춰 《홍취나게》 춤을 추어대야 할것이다. 귀가 잘못되지 않았다면 《짜드》와 같은 미국의 괴물단지를 끌어들이는 벌로 저들의 밥줄이 걸린 중국시장에서 막대한 손실을 당하고 쫓겨나는 남조선기업들의 비명소리가 결코 자지러진 록크음악처럼 들

려오지는 않을것이다.

미국에 던져놓고 맹종하다가 차례진것은 멸시와 랭대, 엄청난 피해와 손실뿐이다. 새 《정부》 취임 5개월만에 천하대란의 위기에 놓였다고 하는 민심의 규탄에 얼마나 속이 떠꺼거리고 골이 아파나겠는가.

지금 괴뢰들은 북과 미국사이, 주변대국들사이에서 저들이 설 자리도 없고 널 목소리도 없다는 《남조선소외》현상으로 하여 울상이 되어있다.

남조선당국이 미국에 추종하다못해 아예 달라붙어버렸는데 어떻게 자기 존재를 나타낼수 있겠는가.

제나들의 정책도, 자기식의 주장도 없이 상전이 하는것이 라면 전쟁행동이든 제재압박

이든 던져놓고 따라하는 하수인, 하나의 독립자주적인 실체가 아닌 미국의 더부살이, 미국이 동아시아지역에서 마음대로 사용할수 있는 도구, 주인의 사냥이 끝나면 잡혀먹히울 사냥개에 불과한 괴뢰들이 동네방네에서 무시당하는것은 조금도 이상하지 않다.

왜냐하면 누구도 그림자와 꼭두각시, 허수아비에게는 말을 시키지 않기때문이다.

괴뢰들이 《짜드》발사대를 추가배치한데 대해 중국의 관영언론들이 《강대국사이에서 끼인 개구리밥신세가 될것》, 《2차 조선반도전쟁의 순장물이 될것》이라고 마음껏 조롱하는것은 단편적인 실례에 불과하다.

우리에게 해결할 힘이 있지 않고 합의를 끌어낼 힘도 없다는 사실이다.》, 《안보위기에 대해 우리가 주도적으로 어떻게 할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한다.》며 연일 답답함을 드러내고있다고 한다.

한탄만 하지 말고 그 원인에 대해 꼼꼼히 생각해보아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남조선당국이 대미추종이나 민족자주냐 하는 기로에서 자신들의 안전과 이익을 위한 새로운 생존방도를 모색해야 할 운명적인 시기이다.

조선반도의 험악한 정세속에서 도대체 무엇이 저들의 근본리익이고 저들이 가장 바라지 않는것이 무엇인가, 괴를 나는 동족을 적대시하고 대양 건너 미국에 붙어살겠다는것이 지정확적으로 보나 생리적견지에서 보나 과연 옳은것인가를 고민해야 할것이다.

력사에는 약삭바른 라산으로 《동맹》과 《련합》에 잘 못 끼여들었다가 공멸을 면치 못한 약소국들이 있는가 하면

대세의 변화를 민감하게 포착하고 강대국의 마수에서 제때에 빠져나오으로써 운명을 건진 속국들도 있다는 사례를 참고하는것도 나쁘지 않을것 같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미국에 지독하게 세뇌되어 독자적인 전략적 및 정치적사유능력이 마비된 괴뢰들이 노예적사고방식의 틀에서 해방될수 있으리라고 기대하는것은 거의나 불가능한 일로 여겨진다.

남조선당국은 박근혜 《정권》이 침몰한것이 본질상 미국의 꼭두각시 《정권》이었기 때문이라는것, 민심의 파도를 타고 저들이 집권하였을 때 온 민족이 바란것 또한 친미와 결별한 민족자주의 새 력사였다 는것을 망각하였다.

미국은 더는 기멸 존재가 못된다는것을 깨달을 때가 되었다.

아메리카에 드리워진 어스름은 련명이 아니라 황혼이며 자기 시대를 다 살고 내리막길로 질주하는 미국을 멈춰세울 힘은 어디에도 없다.

미국이 망하자니 막스럼기 짝이 없는 트럼프같은 괴한이 백악관을 점령하고 랑동을 피우며 세상을 소란케 하는 말세적현상까지 나타났것이다.

이 《트럼프현상》이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라 늙고 병든 미국의 망조를 시사하는 징후 이라는것도 의식 못하고 시대착오적인 《한미동맹만능주의》를 태평가마냥 읊조리는 괴뢰들이 불쌍하기 그지없다.

미치광이 트럼프는 미국을 통채로 그러안고 재앙으로 질주하고 가련한 괴뢰들은 죽을 등살등 모르고 그뒤를 쫓아가고있다.

상전과 한바리에 실려 시대의 벼랑턱아래로 굴러떨어질 때에 가서 아무리 후회해야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전 호

## 후회는 때 늦는 법이다

남조선당국은 정치적자주권은 물론 전시작전통제권마저 미국에 맡긴 자기의 몸값이 얼마나 나가는지 한번 저울에 달아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왜 아무리 유엔무대에 올라 《평화》를 서번비상 웨쳐도, 조선반도에서 전쟁은 안된다고 《단호하게》 말해도 그것이 공허한 메아리로 사라지는지 깨달을수 있을것이다.

측근보좌관들의 조언도 듣지 않고 막무가내로 행동하며 유엔도 우습게 여기고 국제기후협약과 유네스코에서 뛰쳐나가는 트럼프의 귀에 괴뢰들따위 의 목소리는 모기소리만큼도 들릴수 없다는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미동맹》은 넘려말라, 《안보공약》은 굳건하다는 상전의 감언리설은 더이상 괴뢰들의 불안을 달래는 《진정제》로 될수 없다.

하기에 남조선집권자는 《우리가 써지리제 느껴야 하는것은 우리에게 가장 절박한 조선반도의 문제인데도 현실적으로

우리에겐 해결할 힘이 있지 않고 합의를 끌어낼 힘도 없다는 사실이다.》, 《안보위기에 대해 우리가 주도적으로 어떻게 할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한다.》며 연일 답답함을 드러내고있다고 한다.

한탄만 하지 말고 그 원인에 대해 꼼꼼히 생각해보아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남조선당국이 대미추종이나 민족자주냐 하는 기로에서 자신들의 안전과 이익을 위한 새로운 생존방도를 모색해야 할 운명적인 시기이다.

조선반도의 험악한 정세속에서 도대체 무엇이 저들의 근본리익이고 저들이 가장 바라지 않는것이 무엇인가, 괴를 나는 동족을 적대시하고 대양 건너 미국에 붙어살겠다는것이 지정확적으로 보나 생리적견지에서 보나 과연 옳은것인가를 고민해야 할것이다.

력사에는 약삭바른 라산으로 《동맹》과 《련합》에 잘 못 끼여들었다가 공멸을 면치 못한 약소국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에겐 해결할 힘이 있지 않고 합의를 끌어낼 힘도 없다는 사실이다.》, 《안보위기에 대해 우리가 주도적으로 어떻게 할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한다.》며 연일 답답함을 드러내고있다고 한다.

한탄만 하지 말고 그 원인에 대해 꼼꼼히 생각해보아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남조선당국이 대미추종이나 민족자주냐 하는 기로에서 자신들의 안전과 이익을 위한 새로운 생존방도를 모색해야 할 운명적인 시기이다.

조선반도의 험악한 정세속에서 도대체 무엇이 저들의 근본리익이고 저들이 가장 바라지 않는것이 무엇인가, 괴를 나는 동족을 적대시하고 대양 건너 미국에 붙어살겠다는것이 지정확적으로 보나 생리적견지에서 보나 과연 옳은것인가를 고민해야 할것이다.

력사에는 약삭바른 라산으로 《동맹》과 《련합》에 잘 못 끼여들었다가 공멸을 면치 못한 약소국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에겐 해결할 힘이 있지 않고 합의를 끌어낼 힘도 없다는 사실이다.》, 《안보위기에 대해 우리가 주도적으로 어떻게 할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한다.》며 연일 답답함을 드러내고있다고 한다.

한탄만 하지 말고 그 원인에 대해 꼼꼼히 생각해보아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남조선당국이 대미추종이나 민족자주냐 하는 기로에서 자신들의 안전과 이익을 위한 새로운 생존방도를 모색해야 할 운명적인 시기이다.

조선반도의 험악한 정세속에서 도대체 무엇이 저들의 근본리익이고 저들이 가장 바라지 않는것이 무엇인가, 괴를 나는 동족을 적대시하고 대양 건너 미국에 붙어살겠다는것이 지정확적으로 보나 생리적견지에서 보나 과연 옳은것인가를 고민해야 할것이다.

력사에는 약삭바른 라산으로 《동맹》과 《련합》에 잘 못 끼여들었다가 공멸을 면치 못한 약소국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에겐 해결할 힘이 있지 않고 합의를 끌어낼 힘도 없다는 사실이다.》, 《안보위기에 대해 우리가 주도적으로 어떻게 할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한다.》며 연일 답답함을 드러내고있다고 한다.

한탄만 하지 말고 그 원인에 대해 꼼꼼히 생각해보아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남조선당국이 대미추종이나 민족자주냐 하는 기로에서 자신들의 안전과 이익을 위한 새로운 생존방도를 모색해야 할 운명적인 시기이다.

조선반도의 험악한 정세속에서 도대체 무엇이 저들의 근본리익이고 저들이 가장 바라지 않는것이 무엇인가, 괴를 나는 동족을 적대시하고 대양 건너 미국에 붙어살겠다는것이 지정확적으로 보나 생리적견지에서 보나 과연 옳은것인가를 고민해야 할것이다.

력사에는 약삭바른 라산으로 《동맹》과 《련합》에 잘 못 끼여들었다가 공멸을 면치 못한 약소국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에겐 해결할 힘이 있지 않고 합의를 끌어낼 힘도 없다는 사실이다.》, 《안보위기에 대해 우리가 주도적으로 어떻게 할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한다.》며 연일 답답함을 드러내고있다고 한다.

한탄만 하지 말고 그 원인에 대해 꼼꼼히 생각해보아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남조선당국이 대미추종이나 민족자주냐 하는 기로에서 자신들의 안전과 이익을 위한 새로운 생존방도를 모색해야 할 운명적인 시기이다.

조선반도의 험악한 정세속에서 도대체 무엇이 저들의 근본리익이고 저들이 가장 바라지 않는것이 무엇인가, 괴를 나는 동족을 적대시하고 대양 건너 미국에 붙어살겠다는것이 지정확적으로 보나 생리적견지에서 보나 과연 옳은것인가를 고민해야 할것이다.

력사에는 약삭바른 라산으로 《동맹》과 《련합》에 잘 못 끼여들었다가 공멸을 면치 못한 약소국들이 있는가 하면

남조선의 통일부가 《제재압박과 대화병행》타령을 또다시 늘어놓았다.

얼마전 《국회 국정감사》라는데서 통일부는 《강력한 대응을 확고히 견지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을 비핵화협상에 이끌어나갈것이다.》, 《북이 도발할수 있는 상황에서 《(한)미합동군사연습의 일정을 절대로 변경시킬수 없다.》고 하면서 제재와 압박을 떠들어댔다. 그러면서도 《대북인도적지원과 민간교류협력은 정치, 군사적상황에 관계없이 계속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그 무슨 《대화》를 운운하였다. 대세의 흐름과 제재압박의 개념도 모르는 황당한 께변이 아닐수 없다.

오늘 공화국은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의 초강도 제재와 같은 위협속에서도 병진로선의 기치를 높이 들고 힘차게 내달려 수소탄과 대륙간탄도로켓까지 보유한 동방의 핵강국,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우뚝 올라

서있다. 어제날 공화국에 일방적으로 갖은 핵공갈과 위협을 해온 미국이 이제는 조선의 강력한 공격능력에 직결하여 《최대의 위협》과 《극박한 위협》을 떠벌이는 가공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조미사이의 힘의 대결구도는

남조선당국은 제재압박의 개념도 잘 모르는 얼간망둥이들이 라고도 해야 할것이다.

제재와 압박은 강제적수단이 나 힘으로 상대를 굴복시키려는 최대의 적대행위이다.

더우기 공화국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송두리채 부정

미굴종적태도를 가리우고 북침전쟁으로 치닫는 위험천만한 행위를 합리화하기 위한 여론기만용이며 늑거리위장물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남조선의 통일부는 누구도 귀 기울이지 않는 《제재압박과 대화병행》나발을 불어대기 전에 어제날의 치욕스러운 교훈이나 되새겨보는것이 좋을것이다.

통일부는 박근혜 《정권》시기에만도 외세와 야합한 반공화국대결소동에 광분하여온 대결광녀의 특등줄개가 되어 온갖 반통일죄악을 다 저질러왔다. 그래서 《대결부》, 《반통일부》, 《대화차단부》, 《먹통부》, 《밥통부》라는 수치스러운 딱지를 얼굴에 붙이지 않으면 안되었다.

남조선의 통일부가 지난날의 교훈을 망각하고 지금처럼 계속 놀아대다가는 박근혜 《정권》시기처럼 《밥통부》, 《대결부》의 오명을 쓰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김 영 진

남조선당국이 그 누구도 귀 기울이지 않는 《제재압박과 대화병행》나발을 불어대기 전에 어제날의 치욕스러운 교훈이나 되새겨보는것이 좋을것이다.

통일부는 박근혜 《정권》시기에만도 외세와 야합한 반공화국대결소동에 광분하여온 대결광녀의 특등줄개가 되어 온갖 반통일죄악을 다 저질러왔다. 그래서 《대결부》, 《반통일부》, 《대화차단부》, 《먹통부》, 《밥통부》라는 수치스러운 딱지를 얼굴에 붙이지 않으면 안되었다.

남조선의 통일부가 지난날의 교훈을 망각하고 지금처럼 계속 놀아대다가는 박근혜 《정권》시기처럼 《밥통부》, 《대결부》의 오명을 쓰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김 영 진

남조선당국이 그 누구도 귀 기울이지 않는 《제재압박과 대화병행》나발을 불어대기 전에 어제날의 치욕스러운 교훈이나 되새겨보는것이 좋을것이다.

통일부는 박근혜 《정권》시기에만도 외세와 야합한 반공화국대결소동에 광분하여온 대결광녀의 특등줄개가 되어 온갖 반통일죄악을 다 저질러왔다. 그래서 《대결부》, 《반통일부》, 《대화차단부》, 《먹통부》, 《밥통부》라는 수치스러운 딱지를 얼굴에 붙이지 않으면 안되었다.

남조선의 통일부가 지난날의 교훈을 망각하고 지금처럼 계속 놀아대다가는 박근혜 《정권》시기처럼 《밥통부》, 《대결부》의 오명을 쓰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김 영 진

## 《대결부》의 오명을 다시 쓰겠는가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으며 공화국은 국가핵무력완성을 눈앞에 두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서방세계에서도 조선의 핵보유를 인정해야 한다, 미국은 패했다, 시간은 미국편이 아니라라고 하면서 미국이 부질없는 제재와 끔찍한 제앙으로 이어질 자살적인 군사적모험을 하지 말것을 충고하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가고있다.

현실은 이러한데 지금껏 이루어지 못한 《북비핵화》의 꿈을 이제와서 실현해보겠다는것이야말로 언어회롱이고 삶은 소대 가리도 웃을 일이 아닐수 없다.

남조선당국은 제재압박의 개념도 잘 모르는 얼간망둥이들이 라고도 해야 할것이다.

제재와 압박은 강제적수단이 나 힘으로 상대를 굴복시키려는 최대의 적대행위이다.

더우기 공화국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송두리채 부정

남조선당국은 제재압박의 개념도 잘 모르는 얼간망둥이들이 라고도 해야 할것이다.

제재와 압박은 강제적수단이 나 힘으로 상대를 굴복시키려는 최대의 적대행위이다.

더우기 공화국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송두리채 부정

남조선당국은 제재압박의 개념도 잘 모르는 얼간망둥이들이 라고도 해야 할것이다.

제재와 압박은 강제적수단이 나 힘으로 상대를 굴복시키려는 최대의 적대행위이다.

더우기 공화국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송두리채 부정

남조선당국이 그 누구도 귀 기울이지 않는 《제재압박과 대화병행》나발을 불어대기 전에 어제날의 치욕스러운 교훈이나 되새겨보는것이 좋을것이다.

통일부는 박근혜 《정권》시기에만도 외세와 야합한 반공화국대결소동에 광분하여온 대결광녀의 특등줄개가 되어 온갖 반통일죄악을 다 저질러왔다. 그래서 《대결부》, 《반통일부》, 《대화차단부》, 《먹통부》, 《밥통부》라는 수치스러운 딱지를 얼굴에 붙이지 않으면 안되었다.

남조선의 통일부가 지난날의 교훈을 망각하고 지금처럼 계속 놀아대다가는 박근혜 《정권》시기처럼 《밥통부》, 《대결부》의 오명을 쓰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김 영 진

남조선당국이 그 누구도 귀 기울이지 않는 《제재압박과 대화병행》나발을 불어대기 전에 어제날의 치욕스러운 교훈이나 되새겨보는것이 좋을것이다.

통일부는 박근혜 《정권》시기에만도 외세와 야합한 반공화국대결소동에 광분하여온 대결광녀의 특등줄개가 되어 온갖 반통일죄악을 다 저질러왔다. 그래서 《대결부》, 《반통일부》, 《대화차단부》, 《먹통부》, 《밥통부》라는 수치스러운 딱지를 얼굴에 붙이지 않으면 안되었다.

남조선의 통일부가 지난날의 교훈을 망각하고 지금처럼 계속 놀아대다가는 박근혜 《정권》시기처럼 《밥통부》, 《대결부》의 오명을 쓰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김 영 진



## 부마민주항쟁기념식 진행

남조선에서 부마민주항쟁 38돐을 맞으며 기념식들이 진행되었다.

창원시와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는 18일 오전 MBC경남홀에서 《부마민주항쟁 38주년, 제1회 창원시 부마민주항쟁기념식》을 열었다.

기념식에서 창원시장은 《부마민주항쟁은 1979년 10월 18일 창원

《옛 마산》에서 《유신》독재에 반대하여 일어난 민주항쟁이며 군사정권과 철권통치가 18년만에 막을 내리게 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민주주의는 정지된것이 아니고 영원히 계속되는 행진》이라고 토로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은 축사를 통해 《경남

도는 부마항쟁의 정신을 계승하여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립장을 표명하였다.

앞서 17일 저녁에는 《제1회 창원시 부마민주항쟁기념전야제》가 열렸다.

한편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는 지난 16일 민주공원에서 《제38주년 부마민주항쟁기념식》을 진행하였다.

본사기자

《대결부》의 오명을 다시 쓰겠는가

남조선당국은 제재압박의 개념도 잘 모르는 얼간망둥이들이 라고도 해야 할것이다.

제재와 압박은 강제적수단이 나 힘으로 상대를 굴복시키려는 최대의 적대행위이다.

더우기 공화국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송두리채 부정

# 스스로 화를 청한다

화도 복도 다 입에서 나온다고 했다. 최근 남조선당국자들이 입에서 구렁이 나가는지 독사가 나가는지 구분하지 못하고 반공화국대결 망발을 일삼으며 스스로 화를 청하고있다.

얼마전 남조선집권자는 미국을 행각하였던 《국회의원외교단》을 만난 자리에서 조선반도상공을 돌아치며 북침전쟁훈련에 날뛰는 미진략폭격기의 무모한 불장난질을 두둔하면서 《미국의 대북압박에 동의해줄 필요가 있다》고 떠들었다. 한편 국방부 장관 송영무는 미 핵잠수함 《미시건》호를 찾아와 《〈한〉 미공조의 힘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기명을 토하였다.

세상의 조롱거리인 《백악관의 미치광이》를 하나비로 삼기는 쓸개빠진 식민지노복의 역겨운 추태로서 미국의 북침전쟁책동에 편승하여 온 민족을 핵참화속에 몰아넣으려는 반역의 너두리가 아닐수 없다.

알려진것처럼 지금 미

국은 그 무슨 《핵, 미싸일위협》을 떠들며 공화국을 고립압살하기 위해 피눈이 되어 날뛰고있다. 미국대통령 트럼프가 유엔무대에까지 나가 공화국을 《완전과피》하겠다고 떠들고 그 망발의 여운이 가셔지기도 전에 《폭풍전의 고요》라는 악담질로 사람들을 경악케 하는 정도이다.

미국은 공화국을 《완전과피》할 목표에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핵전략자산들을 편이 들어 밀고 전쟁연습을 벌리며 사태를 전쟁국면으로 몰아가고있다.

리성이 있고 지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다 조선반도를 핵참화에 몰아넣고 우리 민족을 멸살시키려는 미국의 무모한 북침전쟁소동을 견결히 배격해나서야 마땅하다.

그런데 남조선당국은 《〈한〉 미공조의 힘을 보여주어야 한다.》며 오히려 불의 불을 기름을 끼얹는 식으로 미국의 반공화국전쟁소동에 편승하

고있으니 그들에게 조선사람의 피가 조금이라도 있는지 묻지 않을수 없다. 사대매국과 동족대결에 환장이 되어 저지르는 남조선당국자들의 무모한 망동이 불려올 후과는 매우 크다.

미국이 떠드는 군사적 압박은 그대로 물리적충돌로 이어진다.

조선과 미국의 물리적 충돌은 전쟁이고 그것은 주변 지역에도 파급되는 핵전쟁으로 이어진다고 외국의 군사전문가들도 평하고있다. 트럼프의 무모한 망동이 3차 세계대전을 일으킬수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미국내에서 울려나오고있는 형편이다.

전쟁이 일어나도 조선반도에서 일어나고 사람이 죽어도 조선사람이 죽는다는 트럼프의 망발은 라민족의 운명은 아랑곳하지 않고 침략의 불을 마구 질러대려는 미국의 날강도적이며 흉흉귀적인 본성을 잘 보여주고있다. 저들의 침략적이고 탐욕적인 이익을 위해 조선

민족을 통채로 제물로 삼으려는 미국의 전쟁호전광들에게 추파를 던지고 있는 남조선당국자들의 역겨운 처사는 상전이 없으면 하루도 살지 못하는 식민지하수인의 비굴한 모습그대로이다.

미국이 떠드는 《대북압박》에 《동의해줄 필요가 있다.》는 남조선집권자의 망발은 공화국과 끝까지 대결해보겠다는 소리외에 다른것이 아니다.

분분초초를 다루며 날로 강화발전되고있는 공화국의 자위적핵억제력앞에 지금 미국은 전전공공하고있다.

이런 상전을 하나비로 믿으며 동족대결의 기명을 토하는 남조선당국자들의 처사는 그야말로 속대우에 올라 기고만장해하는 민중이 그대로이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제명을 다 산 상전을 믿고 실체대과는 생각지도 못한 큰 화를 당할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자숙하는것이 좋을것이다.

본사기자 김 응 철

## 《안보장사》 군들의 상투적인 수법

지금 남조선의 보수야당들이 《안보불안》 고취놀음에 혈안이 되어 날뛰고있다.

보수야당들은 《국회국정감사》에서 《국민의 안보불안감을 해소하고 북과 합의 균형을 맞추려면 북의 코앞에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 《전술핵재배치는 북핵의 고도화된 위협을 억제하는 최소한의 조치》, 《전술핵재배치는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해줄것》이라고 떠들었다.

《자유한국당》 것들은 각 지역을 싸다니며 전술핵재배치를 위한 《대국민보고대회》와 《1000만인 서명운동》을 벌려놓는가 하면 트럼프에게 그 무슨 《서한》을 발송하는 놀음까지 벌려놓았으며 《바른정당》은 《안보가 제일 걱정이다.》고 련일 고아대고있다.

보수야당들의 《안보불안》 고취놀음은 한마디로 쇠피몰락하는 《안보장사》 군들의 상투적인 수법에 지나지 않는다.

남조선에 닥친 《안보위기》, 《안보불안》의 현실적근원은 바로 미국의 대조선전대시정책과 핵전쟁위협이다.

지난 수십년간 미국은 북침을 노린 각종 명칭의 대규모핵전쟁연습들을 벌려놓고 공화국을 핵으로 끊임없이 위협해왔다.

지금 이 시각도 미국은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방대한 핵전략자산들을 끌어다놓고 공화국을 어떻게 하

나 암살해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있다.

만일에 공화국이 정의의 핵을 보유하고 강화하지 않았더라면 조선반도에서는 미국에 의해 전쟁이 열 백번도 더 일어났을것이다. 이것은 엄연한 현실이고 세인의 공정한 평가이다.

바로 미국의 강권과 전횡을 막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 진정한 국제적정의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화국이 만단을 이겨내면서 핵억제력을 다져나가고있는 것이다.

현실은 공화국의 자위적핵무력이 야말로 조선반도 평화수호의 강력한 보검이며 절대적힘이라는것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우리 민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미국의 침략적핵은 《안보용》, 《방어용》이라고 감싸주고 민족의 천만년미래를 담보해줄 정의의 핵보검에 대해서는 《위협》이라고 고아대는것은 민족반역무리들의 쓸개빠진 행위가 아닐수 없다. 또 그것은 사대굴종과 동족대결로 잔명을 부지해가는 보수잔당들의 단말마적 발악이다.

남조선보수세력들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안보불안》의 미명하에 동족대결의 북풍을 제아무리 두드려댔자 그 어디에도 통할수 없다는것을.

본사기자 황 금 속

## 독사의 무리가 이발을 간다

독사는 죽을 때까지 독사다. 이미 만천하에 그 진상이 송두리채 드러난 박근혜—최순실추문 사건을 아직도 그 무슨 《조작》으로 몰아 전면 뒤집어 보려고 미친듯이 악을 쓰고있는 남조선공우보수패당의 모습이 죽을 때까지 독을 쓰는 독사를 방불케 한다.

최근 박근혜잔당의 소굴인 《대한애국당》의 어중이떠중이들은 지난 2012년 《대선》때 박근혜당을 위해 《SNS본부》에서 일했다는 한 인물을 내세워 탄핵사건의 발단으로 되었던 최순실의 판형컴퓨터가 자기가 쓰던것이라고 《증언》하게 하는 《량심선언》 광대놀음을 벌려놓았다. 그리고 《언론들이 거짓선동을 하였다.》, 《특검과 국정감사를 통해 의혹을 풀어야 한다.》고 떠들어댔다.

뿐만아니라 공우보수론객들이 줄줄이 나서 《박근혜탄핵이 언론과 검찰

이 조작한 사기극이었다는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초불시위에 나섰던 사람들은 모두 속았거나 위선자들이다.》고 떠들고있다.

한편 《자유한국당》내 친박근혜파들도 《태블릿 PC의 진짜 주인이 나타났다.》, 《검찰이 깡통임이 드러났다.》고 물고 늘어지면서 당장 《국정조사》와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떠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언론들이 《태블릿 PC 조작》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자료적으로 까밝히고 법원도 그 무슨 《량심선언》을 목살해버리면서 박근혜의 구속기한을 다음해 4월 중순까지 6개월 더 연장하기로 결정하자 공우보수패거리들은 《진실은네》, 《정치보복》, 《헌 〈정부〉는 〈국가〉 전복세력》이라고 악의에 찬 망발을 쉼채대면서 무기한 단식놀음을 벌리는 추태까지 부리고있다.

이번에 공우보수패당이 벌려놓은 거짓 《량심선언》 광대극이 시사해주는 것처럼 초불민심의 준엄한 심판으로 박근혜년과 함께 지리멸렬하게 된 보수패당은 호시탐탐 판을 뒤집고 복수할 기회만을

노리고있다. 박근혜가 탄핵되고 《정권》이 교체되어 몇달이 흐른 지금껏 보수패당은 칼을 갈며 부활을 위해 잠시도 가만있지 않았다.

더우기 인간쓰레기들이 나서서 《초불시위에 나섰던 사람들은 속았거나 위선자》라고 눈썹 하나 모퉁하지 않고 조롱하며 모독하고있는 경악스러운 상황은 사태가 지금 어떤 심각한 지경으로 가고있는가 하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예로부터 독사를 설 다쳐놓으면 반드시 후환을 독뜩히 남긴다고 했다.

남조선의 보수패당이 바라는데로 형세가 뒤집혀지면 어떤 처참한 《마녀사냥》, 보복류혈전이 벌어지겠는가 하는것은 불을 보듯 명백하다.

나란 현실은 보수패당이야말로 씨도 없이 철저히 박멸해버려야 할 남조선사회의 암적존재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김 련 옥

최근 남조선의 통일부가 개성공업지구 입주기업들이 공화국을 방문하겠다는 신청서를 제출한데 대해 《방북의사를 북측에 전달할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모색하겠다.》,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방북문제가 매듭될수 있도록 관계 부, 처와 협의해나갈것이다.》고 떠들어댔다.

남조선당국이 개성공업지구와 관련하여 허튼나발을 불어대며 공화국을 헐뜯다 못해 남측기업들의 《방북문제》를 거든것은 제 처지도 모르는 철면피한 껌변이 아닐수 없다.

사실 개성공업지구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귀히 여기는 공화국의 뜨거운 동포애적초치에 의해 마련된 6.15시대의 옥동자이다.

그러나 박근혜적패당은 북남화해협력의 상징이었던 개성공업지구를 전면중단시키고 기업가들까지 강제로 철수시킴

으로써 공업지구와 관련한 북남합의를 하늘로 날려보냈다.

박근혜적패당의 개성공업지구 전면폐쇄망동은 120여개의 남조선인주기업들을 포함하여 그와 련계된 6000여개의 기업들이 파산위기에 직면하고 12만 4000여명의 로동자들

로써 공업지구와 관련한 북남합의를 하늘로 날려보냈다.

박근혜적패당의 개성공업지구 전면폐쇄망동은 120여개의 남조선인주기업들을 포함하여 그와 련계된 6000여개의 기업들이 파산위기에 직면하고 12만 4000여명의 로동자들

들이 하루아침에 실업자로 전락되었다. 남조선의 개성공업지구 비상대책위원회는 120여개 입주기업의 피해액이 1조 5000억 원에 달한다고 공식발표하였다. 남조선 각계는 《박근혜의 개성공업지구중단초치로 대북제재효과보다 입주기업들의 경제적손실이 더 크다.》, 《대북제재가 아니라 대남제재》, 《북에 하나를 주지 않으려고 수백을 손해보는 머저리짓》, 《박근혜는 수백억US\$를 손해보는 자해행위를 하였

다.》고 준렬히 단죄규탄하였다.

지금 남조선당국이 그 무슨 《재산권침해》와 《확인》에 대해 떠들어대는것은 공업지구를 폐쇄시킨 박근혜역도의 죄악을 덮어두고 기업가들을 반복대결의 돌격대로 썩어먹으려는 교활한 흉심이 아닐수 없다는것을 뻔히 알면서도 남조선당국이 《방북의사 전달》에 대해 황실수설한것은 공업지구폐쇄와 관련하여 저들에게 쏘리는 비난여론을 모면하고 마치도 대화에 관심이나 있는듯이 생색을 내보려는데 있다. 이야말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 해야 할것이다.

남조선당국은 그 누구도 공화국의 주권이 행사되는 군사통제구역인 공업지구에 들어보낼 자격도 명분도 체면도 없다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남조선당국은 공화국의 지역에서 북이 행사하는 모든 권리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시비하기 전에 개성공업지구를 폐쇄시킨 박근혜패당의 범죄적진상을 날날이 파헤쳐 남측주도단이라고 하지 않을수 없다.

개성공업지구 입주기업들의 공화국방문이 실력들은 공우보수세력들의 도전을 물리치고 승리할수 있는 기본방도를 련대와 단합으로 보고있다.

문제는 《국민의 당》내의 안철수파의 동향이다.

지금 안철수파는 《중도통합론》을 내두고 《바른정당》내의 자강파세력을 끌어당겨 제 리속을 챙기려 하고있다.

얼마전 《국민의 당》내의 안철수파가 《바른정당》의 자강파세력과 결탁하여 그 무슨 《국민통합포럼》이라는 정책련대기구를 내온것이 단적인 실례이다.

보수야당과 야합해서라도 침체상태에 빠진 당을



최고 준렬히 단죄규탄하였다.

지금 남조선당국이 그 무슨 《재산권침해》와 《확인》에 대해 떠들어대는것은 공업지구를 폐쇄시킨 박근혜역도의 죄악을 덮어두고 기업가들을 반복대결의 돌격대로 썩어먹으려는 교활한 흉심이 아닐수 없다는것을 뻔히 알면서도 남조선당국이 《방북의사 전달》에 대해 황실수설한것은 공업지구폐쇄와 관련하여 저들에게 쏘리는 비난여론을 모면하고 마치도 대화에 관심이나 있는듯이 생색을 내보려는데 있다. 이야말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 해야 할것이다.

남조선당국은 그 누구도 공화국의 주권이 행사되는 군사통제구역인 공업지구에 들어보낼 자격도 명분도 체면도 없다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남조선당국은 공화국의 지역에서 북이 행사하는 모든 권리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시비하기 전에 개성공업지구를 폐쇄시킨 박근혜패당의 범죄적진상을 날날이 파헤쳐 남측주도단이라고 하지 않을수 없다.

개성공업지구 입주기업들의 공화국방문이 실력들은 공우보수세력들의 도전을 물리치고 승리할수 있는 기본방도를 련대와 단합으로 보고있다.

문제는 《국민의 당》내의 안철수파의 동향이다.

지금 안철수파는 《중도통합론》을 내두고 《바른정당》내의 자강파세력을 끌어당겨 제 리속을 챙기려 하고있다.

얼마전 《국민의 당》내의 안철수파가 《바른정당》의 자강파세력과 결탁하여 그 무슨 《국민통합포럼》이라는 정책련대기구를 내온것이 단적인 실례이다.

보수야당과 야합해서라도 침체상태에 빠진 당을

이를 안받침하기 위해 여러 협의체를 내오는 문제를 추진하려 하고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중진의원들은 《국민의 당》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래년에 있게 될 지방자치제선거에서 《국민의 당》간판으로 당선되기 힘들다, 지금부터 령

법을 정책련대를 위한 협치기구를 나와야 한다고 하면서 《국민의 당》과의 련대를 어떻게 하나 실현하려고 모지름을 쓰고있다.

바빠낸 보수세력들이 이에 촉각을 세우면서 어떻게 하나 되살아나 권력을 잡아보려고 세력확장과 《보수대통합》에 필사적으로 달려들고있다.

《자유한국당》 패들은 형식에 구애되지 말고 보수통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떠들면서 《바른정당》과 《보수우파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실무추진단》을 내오는 등 《보수대통합》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 패들은 래년 지방자치제선거를 겨냥하여 《조직혁신》, 《정책혁신》을 떠들며 《박근혜색갈》 지우기에 달려들고있다.

한편 《바른정당》내의 통합파들도 무한정 시간을 끌수 없다고 하면서 《자유한국당》에로의 복당에 대해 떠들고있다.

남조선의 진보개혁세

추세우고 다음해의 지방자치제선거에서 존재감을 시위하는것과 함께 현 당국의 《국정》운영에 제동을 걸고 몸값을 올려 권력야망을 기어코 실현하자는것이다. 이것은 초불민심은 안중에 없고 오직 집권욕에만 환장이 되어있다는것을 보여주는것이다.

남조선에서 민주개혁세력의 련대와 단합을 실현하는것은 초불투쟁의 전취물을 고수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사활적인 문제이며 광범한 인민들의 요구로 되고있다.

민주세력과의 단합이나 아니면 보수세력과의 정략결혼이나 하는 선택의 기로에서 좌왕우왕하고있는 《국민의 당》에 남조선각계는 경계의 눈초리를 돌리고있다.

본사기자 류 현 철